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산업 부문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임소영 · 김성규 · 김지혜

2016. 12.

머리말

국제사회는 2000년 이후 15년간 개발의 기준이 되어 온 새천년개발목표를 이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목표의 범위를 경제, 사회, 환경부문으로 확장하고 이행 주체의 범위도 확대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개발목표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국가들의 국내 이행을 위한 목표로서의 역할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 마련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대에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산업 부문의 개발목표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 목표들 중 민간 기업들에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개발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경제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분석한 자료들은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인식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산업 부문과 관련된 두 가지 세부 목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일관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지표별 분석 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목표들의 발생 배경과 의의, 국내외 관련 가이드라인과 정책 등을 소개함으로써 이들의 달성이 의미하는 시사점을 찾고, 더 나아가 각 목표의 측정지표 현황과 기초선을 파악하여 현재 여건을 진단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후 초기 단계에 제공되는 목표 분석 결과는 향후 목표들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보고서는 당 연구원의 임소영 부연구위원이 총괄하였으며, 김지혜 연구원과 외부 집필자로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김성규 연구교수가 참여하여 집필하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유익한 논평과 의견을 주신 국무조정실 맹준호 서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임소진 박사와 원내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 결과가 지속가능 발전 시대에 정부 당국자와 기업들의 경제산업 부문 발전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차 례

머리말	3
요약	11
제1장 서론	15
1. 연구 배경과 목적	15
2. 연구 방법 및 범위	21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산업 부문의 이해	23
1. SDGs 경제산업 부문 목표의 중요성	23
2. SDGs 경제산업 부문의 주요 이해관계자	28
제3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산업 부문의 국내이행 여건 분석	30
1. SDGs 국내이행의 의의 및 필요성	30
2.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	34
(1) 기업의 주요 역할과 의의	36
(2) 기업의 SDGs 관련 인식조사 해외 사례	41
3. 국내 기업의 SDGs 관련 인식조사	49
4.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목표 단위 분석 체계	54
제4장 경제성장 및 일자리 목표 분석 : SDG 8	59
1. 목표의 형성 배경과 의의	59
2. 세부 목표 및 측정지표 분석	63
(1) 세부 목표와 주요 개념	63
(2) 측정지표 분석	69
3. 국내외 규범 및 가이드라인 분석	74

(1) 국외 규범 및 가이드라인.....	74
(2) 국내 정책.....	76
4. 국내 여건 분석 및 기초선 조사.....	80
제5장 인프라 및 산업화 목표 분석 : SDG 9.....	88
1. 목표의 형성 배경과 의의.....	88
2. 세부 목표 및 측정지표 분석.....	91
(1) 세부 목표와 주요 개념	91
(2) 측정지표 분석	94
3. 국내외 규범 및 가이드라인 분석.....	99
(1) 국외 규범 및 가이드라인.....	100
(2) 국내 정책.....	107
4. 국내 여건 분석 및 기초선 조사.....	114
제6장 종합 결론 및 제언.....	120
참고문헌	135
Abstract	140

표 차례

〈표 1-1〉 OECD DAC 개발전략의 6대 목표와 UN MDGs의 8대 목표 비교.....	16
〈표 2-1〉 2030 의제의 5대 원칙 내 SDGs의 위치	24
〈표 2-2〉 SDGs 국내이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28
〈표 3-1〉 우리나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체계와 사회, 환경, 경제 영역의 연계	32
〈표 3-2〉 경제산업부문 SDGs 관련 산업별 공유가치(Shared Value) 확장 기회.....	35
〈표 3-3〉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분야별 활동과 예시.....	38
〈표 3-4〉 PWC의 SDGs 참여조사 중 기업 대상 설문 문항	42
〈표 3-5〉 UNGC 캐나다 민간부문 설문 문항	46
〈표 3-6〉 GCNC 민간부문 조사에 따른 SDGs 목표 순위	46
〈표 3-7〉 Corporate Citizenship의 기업 대상 SDGs 관련 설문 문항.....	48
〈표 3-8〉 SDGs 관련 인식 및 여건 조사를 위한 기업 대상 설문 문항 구성	49
〈표 3-9〉 UN이 권고하는 SDGs 이행 여부 관련 국별 자발적 검토보고서의 내용(안)	55
〈표 3-10〉 Tier 시스템에 따른 SDGs 측정지표의 구분.....	58
〈표 4-1〉 SDG 8의 세부 목표와 주요 개념.....	64
〈표 4-2〉 SDG 8번 세부 목표별 측정지표	70
〈표 4-3〉 SDG 8의 주요 측정지표 데이터 활용가능성 현황.....	72
〈표 4-4〉 SDG 8 관련 국제기구의 주요 가이드라인	76
〈표 4-5〉 SDG 8 관련 국내 정부부처.....	78
〈표 4-6〉 SDG 8 관련 정부부처 및 가이드라인.....	79
〈표 4-7〉 SDG 8의 주요 측정지표별 기초선 조사 비교표.....	81
〈표 4-8〉 우리나라 연령 그룹별 실업률 추이.....	82
〈표 4-9〉 SDG 8 주요 측정지표와 우리나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과제와의 조응관계.....	83
〈표 4-10〉 SDG 8의 일자리 관련 측정지표로서 역할이 가능한 국내 성과지표.....	84
〈표 4-1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국내 지표 현황	85
〈표 4-1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SDG 8 관련 지표.....	85

〈표 4-13〉 국가주요지표의 경제 부문과 SDG 8 관련 지표.....	86
〈표 5-1〉 SDG 9의 세부 목표와 주요 개념.....	92
〈표 5-2〉 SDG 9번 세부 목표별 측정지표	95
〈표 5-3〉 Tier 2와 3 해당 SDG 9번 측정지표 관련 논의 사항	97
〈표 5-4〉 SDG 9의 Tier 1 지표별 관리기구와 조사 현황 및 고려사항	98
〈표 5-5〉 국제기구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의 대표 사례.....	101
〈표 5-6〉 GIF 사업수행가이드라인	102
〈표 5-7〉 UNIDO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ISID) 목표와 프로그램.....	104
〈표 5-8〉 SDG 9 관련 국제사회의 합의와 규범, 가이드라인	106
〈표 5-9〉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 목표, 전략.....	109
〈표 5-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주요 성과지표.....	110
〈표 5-11〉 SDG 9 관련 국내의 주요 정책 및 지표	112
〈표 5-12〉 SDG 9 관련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	115
〈표 5-13〉 SDG 9의 Tier 1 해당 측정지표별 기초선 조사 비교표	117
〈표 5-14〉 SDG 9의 측정지표별 국내 기초선 조사.....	118
〈표 6-1〉 SDG 8의 세부 목표별 개념과 국내 기업의 인식조사 결과	121
〈표 6-2〉 SDG 9의 세부 목표별 개념과 국내 기업의 인식조사 결과.....	122
〈표 6-3〉 SDG 8 주요 측정지표의 국내 보완 방향.....	127
〈표 6-4〉 SDG 9 측정지표의 국내 적용 개선 고려사항.....	129
〈표 6-5〉 SDG 8의 세부 목표별 측정지표와 측정 관련 국내 현황.....	130
〈표 6-6〉 SDG 9의 세부 목표별 측정지표와 측정 관련 국내 현황.....	132

그림 차례

〈그림 1-1〉 보고서 구성	21
〈그림 3-1〉 설문 응답 기업의 기본 사항 분포(규모, 업종)	50
〈그림 3-2〉 설문 응답 기업의 SDGs 17대 목표 관련 인지도	51
〈그림 3-3〉 응답 기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52
〈그림 3-4〉 응답 기업들이 회사의 전략상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52
〈그림 3-5〉 응답 기업들이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53
〈그림 3-6〉 응답 기업들이 회사의 미래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목표 순위	53
〈그림 3-7〉 SDGs 목표별 측정지표 분석 체계	57
〈그림 4-1〉 응답 기업들이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67
〈그림 4-2〉 응답 기업들이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67
〈그림 4-3〉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 가장 잘 준비된 목표 순위	68
〈그림 4-4〉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기 어려운 목표 순위	68
〈그림 4-5〉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이행에 회사가 기여할 수 있 는 목표 순위	68
〈그림 5-1〉 응답 기업들이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93
〈그림 5-2〉 응답 기업들이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93
〈그림 5-3〉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 가장 잘 준비된 목표 순위	93
〈그림 5-4〉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기 어려운 목표 순위	93

〈그림 5-5〉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이행에 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목표 순위.....	94
〈그림 6-1〉 기업 비즈니스 활동의 가치사슬.....	133

요 약

개도국의 자립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포괄적인 개발목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완료 시한인 2015년 이후의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채택되었다. 새로운 개발의제는 경제, 사회, 환경, 국제관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었다.

보다 더 광범위한 이슈들을 포함함으로써 SDGs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개발목표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개도국 지원 시에만 고려하는 기준이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각국의 국내 개발 시에도 적용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광범위한 목표와 선진국들의 국내 이행을 포함함으로써 SDGs의 적용은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상당 수준의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새로운 재원의 출처이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기업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기업들은 각자의 전략, 목적 및 활동들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SDGs를 핵심 체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노력 중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경제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산업 부문 SDGs를 분석하고 이의 달성을 돕는 정보 및 지침을 제시한다. 일차적인 목적이 경제성장과 관련된 목표는 목표 8과 목표 9이다.

목표 8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촉진과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내세운다. 이는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핵심 요소인 목표로서 17개 목표들 중 경제 영역과 가장 직접적이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목표 9는 크게 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으로 표현된다.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는 사회와 기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 시스템과 기반을 제공하며,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소득빈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혁신은 산업сек터의 기술적 역량을 진보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해도와 SDGs 달성을 위한 기업 차원의 계획을 알아보고자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기업들의 SDGs 17대 목표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응답의 약 절반인 49%가 SDGs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하였으며,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1%)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의 23%만이 SDGs 이행을 위한 회사 차원의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전략 및 계획, 인력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 배정이나 신규 사업 개발 측면에서는 아직 SDGs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응답 기업들은 전체 17대 SDGs 중 국가 및 회사 차원 모두에서 SDG

8(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답하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SDG 8 이외에 SDG 3(보건복지 증진)과 SDG 4(교육), SDG 10(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목표라고 답하여, 기업들도 국가적으로는 사회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 차원에서는 SDG 9(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와 SDG 12(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가 전략상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SDGs의 지표별 심층 분석 체계를 제시한다. 먼저, SDGs와 세부 목표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지속가능발전 지표와의 조응관계를 검토한다. 이후 세부 목표들과 관련된 국내 정부부처 및 기관을 이해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확인한다. 각 지표와 관련된 국가 정책 및 문서,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국제협정 등을 규명하여 이행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표별 국내현황을 파악하고 기초선(baseline)을 설정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SDGs 심층 분석체계에 따라 SDG 8과 9를 각각 분석하였다. SDG 8과 9 목표의 형성 배경과 의의, 세부 목표 및 측정지표의 분석, 국내외 관련 규범 및 가이드라인 분석, 국내 여건 및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 단위에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업 내 SDGs 인식 증진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조직, 직무, 사업에 SDGs를 내재화하되, 원자재부터 제품폐기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의 가치사슬 단계별 매핑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기업들은 각 기업의 우선순위 SDG의 확인과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계

획의 포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여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SDGs를 주류화해야 한다. SDGs의 효과적인 주류화를 위해 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강화할 목적의 조정 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 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실행력을 향상시킬 민관협력 체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재원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개발은 주로 자본 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풍부한 유희노동력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에 물적 지원을 확대하면 이들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조가 지배적이었다(김세원 외,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물적 지원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개도국의 외채 누적 등의 부작용을 낳자 197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 지향적인 개발 방향이 빈곤퇴치,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원조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빈곤문제는 20세기가 끝나가도록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정체 국면을 타개하고자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빈곤 감축 논의를 다방면으로 전개하였다. 1996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가 발표한 정책

성명인 21세기 개발전략¹⁾을 토대로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개발이 가시화되었다. DAC의 성명이 비전 규정을 위해 제시한 6개의 목표는 이후 2000년에 최종 채택된 MDGs의 8개 목표의 근간이 되었다. DAC의 성명과 UN MDGs 모두에 당시의 국제개발 기조가 반영된 결과, 사회개발에 치중된 목표들이 대거 설정되었다.

MDGs 8개의 목표들 중 경제성장 및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는 각각 한 개씩만 배정되었으며, 그나마도 사회개발 성격이 강한 세부 목표들을 포함한다. 경제성장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목표인 첫 번째 목표, ‘극심한 빈곤 및 기아 종식’도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 등 개도국의 지속적인 성

〈표 1-1〉 OECD DAC 개발전략의 6대 목표와 UN MDGs의 8대 목표 비교

OECD DAC 21세기 개발전략의 비전 규정을 위한 6대 목표(1996)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8대 목표 (2000)
1. 경제적 복지 : 개도국 극빈층 비율을 2015년 까지 반감 2. 사회개발 : 초등교육, 성 평등, 기초의료서비스, 가족계획의 증진 ① 2015년까지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② 2015년까지 초중등 교육의 성차별 제거를 통한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실현 ③ 2015년까지 1990년 대비 개도국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2/3 감소, 임산부 사망률 3/4 감소 ④ 2015년 이전까지 가족계획 등 생식보건서 비스의 접근성 확보 3. 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재생성 :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1. 극심한 빈곤 및 기아 종식 2.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3. 성 평등 증진 및 여성의 역량 강화 4. 유아 사망률 감소 5. 모성보건 개선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예방 7.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자료 : OECD(1996), pp.9-11과 UN(2001), pp.55-58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1) DAC(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장보다 사회개발 성격이 강한 빈곤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목표인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MDG 7)’도 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고유의 이슈나 최근의 글로벌 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인간의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이나 에너지 보급과 같은 사회개발 관점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

MDGs는 빈곤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을 중시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결과 중심의 원조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MDGs는 지난 15년간 국제사회 원조의 기준 역할을 해 오면서, 전반적으로 빈곤감소, 질병률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의 실현, 유아 사망률 감소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김세원 외, 2015; 임소진, 2012; 임원혁, 2012). 그러나 원조 중심으로 성과를 낸 사회개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도국 자립으로 기본욕구의 충족이나 사회개발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개도국의 자립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포괄적인 개발목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MDGs 완료 시한인 2015년 이후의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을 위하여 국제사회는 UN의 고위급 패널과 Rio+20 회의를 통해 마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념과 초안을 기초로 하여 Post-2015 개발목표의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았다. UN의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이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초안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 조정한 후 이를 UN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Post-2015 개발목

표로서 최종 채택되었다(김세원 외, 2015; 임소진, 2015).²⁾

이전의 MDGs가 UN 내부 소수의 전문가와 정부 간 합의에 의해 수립되어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목표에는 다양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임소진, 2015). 그 결과, Post-2015 개발의제는 경제, 사회, 환경, 국제관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발전 패러다임의 전방위적 전환을 강조하며,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SDGs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SDGs는 전 세계 개발의 다섯 가지 주요 기회요인을 강조한다.³⁾ 즉, 17개 SDGs는 (i)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inclusive), (ii)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인(universal), (iii) 경제, 환경,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통합된(integrated), (iv) 현지 관계자와 지역사회가 중심인 현장중심의(local-focused), (v) ICT, 데이터, 재료과학, 제조업, 유전학 등 기술변화에 부합하는 기술주도의(technology-driven) 발전을 지향한다.

보다 더 광범위한 이슈들을 포함함으로써 SDGs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개발목표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만큼 개도국이나 개발협력 관계자뿐만 아니라 선진 공여국들도 목표 달성의 주체가 된다. 즉, SDGs는 내용과 적용 대상 측면에서 이전보다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 개도국 지원 시에만 고려하는 기준이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각국의 국내 개발 시에도 적용하는 기준으로

2)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포함된다.

3) <https://sdg.guide/chapter-1-getting-to-know-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e05b9d17801#.unkfn6jkk>(접속일 : 2016.7.8).

활용된다. 즉,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⁴⁾(이하 2030 의제)’에 따라 2030년까지 SDGs의 국내 이행을 실현해야 한다.

2030 의제의 79조는 국별 SDGs 이행 경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가 주도의 검토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UN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이하 ECOSOC)의 주최로 정부 간 회의인 고위급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에서 각국의 SDGs 이행 정도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2016년 7월에 개최되는 첫 HLPF에서 각국의 자발적 검토보고서(National Voluntary Review)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 작업에 착수한다. 총 22개국⁵⁾이 국별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자발적으로 약속하였으며, 각국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SDGs 이행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국별 검토보고서의 제출을 약속한 국가로서, SDGs의 국내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국가 수준과 수요,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목표와 선진국들의 국내 이행을 포함함으로써 확대된 SDGs의 적용은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상당 수준의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개도국의 SDGs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투자 규모가 매년 3조 3,000억~4조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추정되기도 한다(UNCTAD, 2014). 2015년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금액이 1,32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SDGs 투자 수요를 실제로 조달하기가 요원해 보인다(OECD, 2016).

4)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노르웨이, 필리핀, 대한민국, 사모아, 시에라리온, 스위스, 토고,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이러한 환경에서 새로운 재원의 출처이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기업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SDGs는 전 세계 가장 시급한 지속가능발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즉, SDGs는 빈곤, 보건, 교육, 기후변화 등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범주의 지속가능 발전 주제를 다룸으로써 기업의 사업전략과 글로벌 우선순위를 연계하도록 돕는다(GRI et al., 2015). 기업들은 각자의 전략, 목적 및 활동들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SDGs를 핵심 체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업들은 SDGs를 통해 사업기회를 확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과 계획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GRI et al., 2015).

실제로 기업 관계자들은 SDGs 구상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 기업들도 환경 및 사회적인 이슈를 배려하여 기업 활동을 전개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만들어 활용한다는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하는 중이다. 특히 기업들이 주요 행위자 역할을 하게 될 경제산업 부문 SDGs의 경우, 이에 대한 기업의 입장과 인식을 면밀히 이해하여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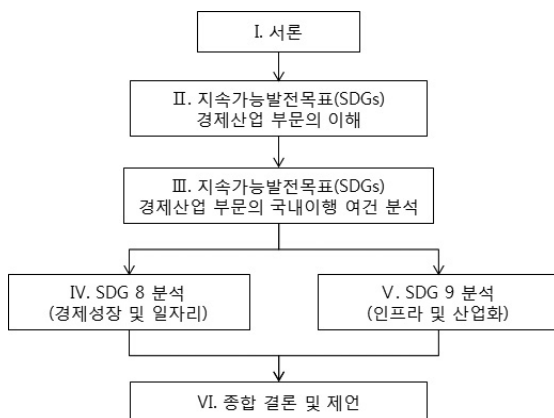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노력 중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경제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산업 부문 SDGs 분석체계를 마련, 목표의 국내이행 현황을 이해하고 기준선을 제시하는 작업을 돕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 부문 SDGs의 달성을 돕는 정보 및 지침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SDGs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SDGs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특히 기업의 역할과 책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경제산업 부문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현 상황을

과약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SDGs 국내이행 현황을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정보와 통계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향후 15년간 글로벌 개발의 기준이 될 SDGs 중 경제산업 부문의 의의와 주요 이해관계자를 이해하고, 이들의 국내이행을 위한 현재 여건을 분석한다. 이때 경제산업 부문 SDGs의 국내이행의 핵심역할을 하게 될 국내 기업의 SDGs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민간부문의 SDGs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분석하고 향후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분석된 내용과 국제사회의 결정사항 및 가이드라인들을 토대로 하여 SDGs 경제산업 부문 국내이행 분석틀을 제안한다. 동 분석틀을 활용하여 경제산업 부문 SDGs인 SDG 8(경제성장 및 일자리)과 SDG 9(인프라 및 산업화)를 심층 분석하고 이

〈그림 1-1〉 보고서 구성



들의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회의의 결정문과 조치 사항, 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문헌조사 중심으로 정리, 분석한다.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조정사항들을 파악하는 한편, 민간 부문의 SDGs 관련 이해도와 계획은 설문조사를 통해 점검한다. 경제산업 부문 SDGs의 이행 평가에 요구되는 기초선 측정치를 국내 공식 통계 데이터와 국제 지수들을 활용하여 구축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산업 부문의 이해

1. SDGs 경제산업 부문 목표의 중요성

2015년 9월, UN은 지난 15년간 국제개발의 지표 역할을 해 온 새천년 개발목표(MDGs) 이후의 개발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최종 채택하였다. 이는 2012년 이후 약 3년 동안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물로서 UN 총회 결과문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개발의제⁶⁾’에 포함되었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들로 이루어진 SDGs는 MDGs에 비해 포괄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한편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강조한다. SDGs의 설정은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채택 당시의 국제개발 기조에 따라 사회개발 중심의 목표들이 중심이었던 MDGs에 반해 SDGs는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환경보호를

6) UN(2015),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영역을 고루 중시한다. 새로이 설정된 SDGs 17개 각 목표들이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일차 목적이 있더라도, 이들은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을 모두 배려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경제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표인 목표 8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촉진과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구체적인 지향점을 표방하면서, 경제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환경 부문들까지 고려한 발전을 추구한다. 즉, 양적인 소득 증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골고

〈표 2-1〉 2030 의제의 5대 원칙 내 SDGs의 위치

17대 SDGs \ 2030 의제의 5대 원칙	People (사회)	Planet (환경)	Prosperity (경제)	Peace	Partner- ship
목표1. 빈곤해소	■				
목표2.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		■		
목표3. 보건복지 증진	■				
목표4. 교육	■				
목표5. 양성평등	■				
목표6. 물과 위생	■	■			
목표7. 지속가능한 에너지	■	■	■		
목표8. 경제성장 및 고용	■		■		
목표9. 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	■	■	■		
목표10. 불평등 해소	■		■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	■	■			
목표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	■		
목표13. 기후변화	■	■			
목표14.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	■		
목표15. 육상생태계		■			
목표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			■	
목표17.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		■

자료: 저자 작성.

주: ■ 주요 목적, ■ 부수적 목적.

루 주는 포용성을 강조하는 한편,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 SDGs의 17개 목표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영역인 경제, 사회, 환경 부문에 상호배타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목표들이 복수의 부문과 관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목표에서 배려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연구는 SDGs의 17개 목표들이 주요 목적으로 삼는 영역을 중심으로 이들을 분류하였다(〈표 2-1〉 참조). 분류는 2030 개발의제가 제시한 다섯 가지 원칙인 5Ps⁷⁾을 기준으로 하였다.

상기 분류에 따르면, 일차적인 목적이 경제성장과 관련된 목표는 목표 8 ‘경제성장 및 고용’과 목표 9 ‘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이다. 이들 중 목표 8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촉진과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내세운다. 이는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핵심 요소인 목표로서 17개 목표들 중 경제 영역과 가장 직접적이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은 여전히 하루에 2달러라는 빈곤선 근처에서 생계를 유지한다. 또한 일자리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주요 도전과제로 남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되려면 환경 친화적이면서 사회평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빈곤감축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다면 국제적인

7) People(사람=사회), Planet(지구=환경), Prosperity(번영=경제), Peace(평화), Partnership(파트너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 실업자들은 2007년 1억 7,000만 명에서 2012년 2억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약 7,500만 명이 청년들이다. 전 세계의 취업연령 인구 증가율에 맞추기 위하여 2016~2030년 기간에 4억 7,0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⁸⁾ 일자리 창출에서 더 나아가 빈곤선 이상의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7억 8,000명의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평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⁹⁾

이에 목표 8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환경과 사회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정량적인 목표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에 관한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성별, 연령, 국가를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목표 9는 크게 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으로 표현된다.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는 사회와 기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 시스템과 기반을 제공한다. 생산성 및 소득 증가, 보건 및 교육의 성과 개선을 위해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소득빈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은 주요 소득창출원이 되는 동시에 모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혁신은 산업섹터의 기술적 역량을 진보하게 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8)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economic-growth/>(접속일 : 2016.6.22).

9) *ibid.*

기술적 진보는 에너지 효율 제고와 같은 환경적 목적 달성의 기반이 된다. 즉, 기술혁신은 산업화에 필수적이며, 산업화는 발전이 일어나도록 하는 필수 요소이다.

UN 통계위원회는 제46차 회의(2015.03)에서 ‘SDG 지표에 관한 기관 및 전문가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이하 IAEG-SDGs)’ 구성을 결의하였다. 동 그룹은 지역 간 안배를 고려하여 총 24개국의 국가 통계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들은 주로 Post-2015 개발의제의 목표와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2015년 9월 제70차 UN 총회는 2016년 3월까지 IAEG-SDGs가 SDG 지표를 제안, UN 통계위원회의가 합의하며,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이를 총회에서 인준할 것을 예고하였다.¹⁰⁾ 회원국들은 합의된 지표에 따라 후속조치 및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표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¹¹⁾

2015년부터 총 세 차례 회의와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지표들을 제47차 UN 통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선정된 지표들은 2030 의제의 주요 원칙인 “Leave no one behind”를 고려하여 가급적,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장애, 지리적 위치와 그 이외의 특징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¹²⁾ 이렇게 선정된 지표들은 연간 SDGs 성과 보고서 발표, 국가별 통계 시스템 확립을 통한 데이터 취득, 이를 소지역별, 지역별, 글로벌 차원에서 취합, 통계적 역량 강화,

10) Resolution 70/1, para 75.

11) Resolution 70/1, para 55.

1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261.

IAEG-SDGs와 고위급회의(High Level Group)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행하기로 하였다.

2. SDGs 경제산업 부문의 주요 이해관계자

SDGs는 포괄적인 이슈를 포함하는 한편 광범위한 이행수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들의 이행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노력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어 통합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각자가 인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SDGs 이행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기업, 학계, 개발파트너로 구분할 수 있다(〈표 2-2〉 참조). 중앙정부는 SDGs 이행에 있어서 궁극의 의무를 가진다. 즉, SDGs 이행에 관한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국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표 2-2〉 SDGs 국내이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그룹	예시
중앙정부	정부부처의 전문 직원, 정부 및 지방정부 대표 등
지방정부	시/도 정부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정부 등
시민사회	NGO, 자원봉사 단체, 토착민 단체, 사회운동가, 지역사회 기구
학계	국가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SDSNs), 대학(특히 도시계획과, 사회과학과, 공공정책과), 기술연구소, 연구소, 국책연구소 등
개발파트너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기업	기업 대표이사, 상공회의소, 협동조합, 협회, 제조업자 등

자료 : <https://sdg.guide/chapter-2-preparing-for-implementation-f37f877444ba#.y9go6eup2>(검색일 : 2016.7.1).

연례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며,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그룹을 생성함으로써 SDGs의 이행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지방정부는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국가 차원의 계획을 지방 단위의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사회는 소외된 지역의 수요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SDGs의 포용성을 증진하고, 풍부한 빈곤층 대상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여건에 적절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대학, 연구소 등 학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을 통해 이행의 모니터링을 돕는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을 통해 대중인식을 제고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이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SDGs의 이행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은 여타의 이해관계자들에 비하여 기존의 국제개발에 관해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공헌이나 공유가치 창출, 그리고 새로운 지속가능경영의 차원에서 기업들도 SDGs 이행에 동참해야 할 당위성이 점차 증가하는 중이다. 17개 SDGs 중에서도 경제산업 부문의 목표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전략과 기업운영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체적인 SDGs의 국내이행 차원에서도 고용과 혁신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협력은 성공적인 SDGs 국내이행에 필수적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산과정, 천연자원의 재사용,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부의 SDG 기획과정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기업에 많다. 단, 인권침해, 부정부패, 투명성, 법 및 납세 준수 등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산업 부문의 국내이행 여건 분석

2016년은 UN총회가 채택한 2030 개발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원년이다. 2016년 7월에 개최되는 첫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국별 자발적 검토보고서(National Voluntary Review)를 통해 각국의 SDGs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점검한다. 자발적인 국별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한 국가 그룹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도 SDGs의 국내이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1. SDGs 국내이행의 의의 및 필요성

개도국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MDGs와 달리 SDGs는 각국의 현실, 역량,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즉, 국가 계획 우선순위와 정책에 SDGs를 통합하고 이의 국내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개 SDG 목표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식량안보와 관련된 목표 2는 기

이종식 및 식량 확보 차원에서 더 나아가 농업생산성에도 연계된다. 도시와 정주 여건 관련 목표인 목표 11은 인프라 건설과 함께 자원순환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 환경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서로 다른 섹터들을 종합적으로 증진하는 방향으로 SDGs 이행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별 지속가능발전전략은 각국의 국내적 우선순위를 글로벌 개발 목표 프레임워크에 연계한다.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¹³⁾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이행계획을 개발하도록 각국에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후 약 15년 동안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정책적 수준에서 성장에 관한 각기 다른 관점들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한편, 혁신적인 정책을 도출하기도 한다.

지속가능발전 계획수립과 이행에 관한 국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¹⁴⁾에 의거, 우리나라도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시민사회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 사회, 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고, 2011년에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다.

환경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던 초기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세에 따라 2차 기본계획까지는 환경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주로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13)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14)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 이후 UN은 의제21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국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표 3-1〉 우리나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체계와 사회, 환경, 경제 영역의 연계

목표	전략	이행과제	People(사회)	Planet(환경)	Prosperity(경제)	
1. 건강한 국토 환경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1-1-① 깨끗한 대기질 확보				
		1-1-② 도시 생태공간 확충				
		1-1-③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1-1-④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1-2-①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1-2-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1-2-③ 연안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1-3-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1-3-②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1-3-③ 물순환 체계 강화				
		21-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21-② 고용·복지 연계 강화				
2. 통합된 안심 사회	2-1. 사회 계층 간 통합 및 양성 평등 촉진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21-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22-①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22-② 농림어업인 복지 및 장주여건 개선				
	2-2. 지역 간 격차 해소	22-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23-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23-② 어린이 건강 증진				
		23-③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23-④ 식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23-⑤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24-①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24-②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폐해구제 확대				
2-4. 안전 관리기반 확충	24-③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24-④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계속)						

목표	전략	이행과제	People(사회)	Planet(환경)	Prosperity(경제)
3. 포용적 혁신 경제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3.1-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3.1-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3.1-③ 공정거래 문화 확산			
		3.1-④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3.1-⑤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책	3.2-①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3.2-②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3.2-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3.2-④ 저탄소생활 확산			
		3.3-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4. 글로벌 책임 국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3.3-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3.3-③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4.1.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 강화	4.1-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4.1-②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4.2-① 신기후체제 효과적 대응			
		4.2-②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4.2-③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			
		4.2-④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4.3-① 동북아 지역 환경공동체 강화			
		4.3-② 그린테마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자료 : 관계부처협동(20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①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③ 사회 투명성 제고			
		④ 지속가능발전 평가·현류체계 강화			

자료 : 관계부처협동(20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고려되었다. 그러나 2015년 전 세계 개발목표로서 SDGs가 채택되면서, 2015년에 수립된 우리나라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경제와 사회 측면의 지표들도 비중 있게 포함하고자 하였다. 즉, SDGs를 국내 여건에 반영하되, 기존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한 분야를 보강하는 한편 새롭게 대두된 위협요인을 반영하겠다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그 결과,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목표와 13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한다(〈표 3-1〉 참조).

그러나 SDGs의 방향과 취지를 제3차 기본계획에 연계하고자 했던 의도와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표가 선정된 환경 분야에 비해 경제와 사회 분야의 지표들은 아직 미흡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 분야 지표는 매우 제한된 범위만을 다루고 있으며, 그나마도 환경 측면을 강하게 고려하고 있어 경제지표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포용적 혁신 경제’ 목표하의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전략들은 경제 섹터 내 환경적 요소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강조와 동북아 협력, 남북 관계에 관한 이행과제는 현재 국내 상황과 이슈들을 반영한 국내이행 관련 목표들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좀 더 다차원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당 지표도 그에 맞게 배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기업의 역할

SDGs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

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UN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도입 초창기부터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SDGs 달성을 위한 기업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여타 이해관계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기업의 SDGs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과거 MDGs 이행 시기와 비교하여 기업들의 SDGs

〈표 3-2〉 경제산업부문 SDGs 관련 산업별 공유가치(Shared Value) 확장 기회

산업	목표 8	목표 9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보호 및 보증 강화 · 마이크로파이낸스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다양한 자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전문성 접근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 사업에 대한 장기 금융 증대 · 환경 민감 분야, 저소득계층을 위한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 보증
식품, 음료,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 · 농업 종사자에 대한 기술 발전 계획 제공 · 지역 농업 종사자에게 시장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인프라, 기술 투자에 있어 범분야 협력 · 물리적 인프라 확대 · 사회 인프라 확대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용주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확대 · 공급자들의 소득 증대 기회 확대 · 여성, 소수자 기업에 대한 기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경 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자원 확대 · 저소득자에 대한 기술 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인프라 협력 증진 · 물, 에너지, 교통, 보건, 공공 안전과 관련 위험 요인 완화
건강 및 생명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시장에 혁신적 기술 이양을 위한 파트너십 확대 · 보건 관련 인력 파견 확대 · 의학 연구소, 병원 등을 통한 훈련 기회 증진 · 개도국으로 이전한 민간 기업에 대한 안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대한 지식, 기술 이전 및 접근성 증진, 시장 확대 및 지역산업 기술 향상

자료 : UN Global Compact(2015).

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실제적으로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역할을 늘려가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 SDGs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게 되면서 SDGs의 이행에 관한 기업의 참여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UN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이하 UNGC)는 SDGs와 연관성이 높은 총 6개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SDGs의 이행으로 인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하기도 하였다.¹⁵⁾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 분야는 금융 서비스, 교통, 제조업, 건강 및 생명과학, 식음료 및 소비재, 에너지·천연자원·화학 분야이다.

(1) 기업의 주요 역할과 의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기업 및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비즈니스와 산업 그룹¹⁶⁾은 UN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에 소속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중 하나로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기업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 작업반이 출범한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젠다 수립에 관여했으며, 기업 활동과 고용창출을 장려하는 프레임워크의 도입을 강조하였다(B & I Major Group, 2013).

2013년에 출범한 글로벌비즈니스연합¹⁷⁾은 국제상공회의소¹⁸⁾를 의장으로 총 18개의 주요 기업 연합과 관련 조직들을 포괄하며 지속가능발

15) UN Global Compact & KPMG(2015), SDG Industry Matrix.

16) Business and Industry.

17) Global Business Alliance, GBA.

18)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전목표 수립에 있어서 기업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동 연합은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목표 수립과정에서 교통, 식량안보와 영양, 물, 자원관리, 인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기업과 관련한 지표 개선에도 참여하였다.¹⁹⁾

지속가능개발의제 수립과 관련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5년 9월 발표된 2030 개발의제 최종안에는 비즈니스 부문의 참여 필요성과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되었다(UN General Assembly, 2015). 비즈니스 부문은 최종안 전반에 걸쳐 주요 수행 주체로 수차례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최종안의 67번 조항을 통해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2030 의제 내에서 기업은 생산성, 포용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의 주요 주체로서 인식되며 혁신과 창조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주요 당사자로 받아들여진다. SDGs 도입과 함께 비즈니스 부문의 역동적이며 순기능적인 역할 수행과 국제적 규범의 준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SDGs 달성은 기업들에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SDGs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는 SDGs 이행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²⁰⁾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 방향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SDGs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가치

19) www.ghafor2030.org(검색일:2016.5.20).

20) 기업의 SDGs 이행은 실제로 기업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WC의 기업 참여 조사 중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 응답자의 90%가 기업의 SDGs 이행 약속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8%가 SDGs 이행을 약속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기업의 SDGs 참여 시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수익 증대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PWC, 2015).

〈표 3-3〉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분야별 활동과 예시

기업의 역할	구체적 활동	예시
국제적 기준과 책무성에 기반을 둔 기업 지속가능성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많은 기업들이 SDGs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국제적 기준 수용 -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10대 원칙 적용 -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프레임워크 적용
지속가능성 목표와 일치하는 기업의 이행 약속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업 내 목표 설정 - SDGs 이행을 위한 기업 구조적 개선 - 평가 프레임워크 도입 	
글로벌 이슈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주도의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 -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기업의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 CEO Water Mandate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D) - 부패방지세계경제포럼이니셔티브(World Economic Forum's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
산업 분야 이니셔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산업분야에서 사회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가이드라인, 목표 수립 - 산업분야별 최소한의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onsible Care(화학산업) - 글로벌광업이니셔티브(Global Mining Initiative) - 전자산업시민정신이니셔티브(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Initiative) - 공정노동협회(Fair Labor Association)
파트너십과 단체활동을 위한 메커니즘 또는 네트워크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에 단체 행동을 통한 영향 확대 - 조직 간의 연합체 구성 - 상품, 서비스, 역량, 자원 공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리더스회의(Leaders Summit) - 세계경제포럼 녹색성장 행동연합(Green Growth Action Alliance) - UNDP 남-남 협력(South-South Gate)
비즈니스 주도의 국내 수준 지속가능네트워크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구성 - 지역 비즈니스 주체들과 사례 공유 및 학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현장네트워크(Local Networks)
민간부문 재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분야 투자 - 임팩트투자를 통해 사회, 환경 분야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 관리 - 투자에 있어서 사회, 환경적 영향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기금, 소액지원, 임팩트채권(Impact bonds), 기후작물보험 - 책임적 투자 원칙 - 사회적 투자 원칙 - 적도 원칙

자료 : UNGC(2013a, 2013b)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를 기업 내에 내재화하게 된다(GRI et al., 2015). 즉, 기업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안을 찾는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전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정책적인 변화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한편 기업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을 지원함에 따라서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GRI et al., 2015). 끝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 정의하는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서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GRI 외, 2015).

UNGC는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기여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UNGC, 2013a).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원칙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환경, 사회적인 유해성을 줄이는 소극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기업의 생산, 서비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표 3-3>은 이러한 기업의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여 비즈니스 분야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과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SDGs 참여는 사업 수행 시 국제적 규범이나 국가별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산업 분야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DGs와 일치하는 목표를 수립하는 등의 내부적인 활동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GC가 도입한 SDG Compass는 SDGs 이행을 위한 기업의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GRI, UNGC, WBCSD, 2015). 즉, (i) SDGs 이해, (ii) 우선순위 파악, (iii) 목표 설정, (iv) 통합, (v) 보고와 소통의 총 5단계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치면서 기업은 효과적으로 SDGs를 기업

내부에 내재화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 국내적, 국제적 수준의 파트너십, 플랫폼 또는 분야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거나, 네트워크 확대, 집합적 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실제로 기업들은 실제적인 사업 콘텐츠를 활용해 SDGs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전체를 포괄하여 2,000개 이상의 이니셔티브가 SDGs 협력기관으로 등록되었다.²¹⁾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CJ제일제당의 친환경 바이오 사업이 ‘SDG 2. 기아종식’, ‘SDG 17.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요 목표로 하여 SDGs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로 등록하였다.²²⁾

끝으로, 기업은 SDGs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SDGs 달성의 관건은 충분한 재원확보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부문 재원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원 동원과 관련해서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책임금융(Responsible Finance),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 등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움직임들이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갈 수 있다(UNCTAD, 2014).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의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21)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search/?str=>(검색일: 2016.5.20).

22)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progress&id=163>(검색일: 2016.5.20).

(2) 기업의 SDGs 관련 인식조사 해외 사례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조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SDGs 관련 중요성 인지 정도, 목표의 우선순위, 목표 관련 대응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1)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기업인식 조사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 이하 PWC)는 과거 MDGs에 비해 SDGs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SDGs에 관한 기업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³⁾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증대가 실제 기업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SDGs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 측면에서도 사회적 책임의 달성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PWC의 SDGs 참여조사는 2015년 6~7월, 986개 글로벌 기업과 일반시민 2,01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현재까지 수행된 SDGs 관련 기업 조사로는 가장 큰 규모로 일반시민의 기업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수행되었다. 그중에서 기업 대상의 주요 설문은 기업의 SDGs 인지도 및 수행 주체, 기업의 영향력이 높은 분야와 향후 기업에 있어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 분야를 포함하고 있

23) PWC(2015)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표 3-4〉 PWC의 SDGs 참여조사 중 기업 대상 설문 문항

분야	설문 문항
인지도	1. SDG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수행주체	2. SDG의 주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기업의 영향력	3. SDG 목표 중 귀사의 비즈니스가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 5개를 순서대로 고르시오
비즈니스 기회	4. 미래에 귀사에 있어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을 예상되는 분야 5개를 순서대로 고르시오
영향평가 계획	5. SDG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① 계획 없음 ② 계획은 있으나 방법은 아직 모름 ③ 비즈니스 관련 일부 목표에 대한 영향평가 계획과 지표를 계획 중임 ④ 비즈니스 관련 전 목표에 대한 영향평가 계획과 지표를 계획 중임 ⑤ 17개 전 목표에 대한 영향평가 계획과 지표를 계획 중임 ⑥ 잘 모르겠음
대응방안 (현재 기준)	6. SDG에 대응하여 어떤 활동을 준비 중인가? ① 관련 SDG 목표 파악 ② CSR 연계 ③ SDG 관련 프로젝트 ④ 전략, 비즈니스 이행 방식에 반영 ⑤ SDG와 기업목표 일치 ⑥ 관련 SDG 목표 및 지표 파악 ⑦ SDG 관련 연간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⑧ 영향평가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⑨ SDG와 연계한 기부활동 ⑩ SDG와 연계한 연례보고서 작성 ⑪ SDG와 연계한 기금 활동
대응방안 (5년 후)	7. 향후 5년 내에 SDG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고려 중인가? ① 관련 SDG 목표 파악 ② CSR 연계 ③ SDG 관련 프로젝트 ④ 전략, 비즈니스 이행 방식에 반영 ⑤ SDG와 기업목표 일치 ⑥ 관련 SDG 목표 및 지표 파악 ⑦ SDG 관련 연간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⑧ 영향평가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⑨ SDG와 연계한 기부활동 ⑩ SDG와 연계한 연례보고서 작성 ⑪ SDG와 연계한 기금 활동

자료 : PWC(2015).

다. 기업들이 향후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역시 질문에 포함되었다.

PWC의 설문 결과, SDGs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설문대상 기업의 92%가 SDGs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답해 동일 질문에 대해 일반 시민이 보여준 인지도 결과(33%)보다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DGs의 주요 책무자로 기업의 49%가 정부를 지정한 반면, 기업 자신을 꼽은 경우는 10%에 그쳐 인식과 책무성이 동일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SDGs에 대한 영향력 분야와 기업에 대한 기회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업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SDGs는 SDG 8(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SDG 13(기후변화), SDG 9(산업, 혁신, 인프라), SDG 4(양질의 교육), SDG 3(보건 증진)인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 향후 비즈니스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SDGs로는 SDG 8(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SDG 9(산업, 혁신, 인프라), SDG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SDG 13(기후변화), SDG 11(지속가능한 도시) 등을 꼽았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의 영향력과 비즈니스 기회의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각 기업들은 향후 자신들의 비즈니스 확대가 가능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 비즈니스와 SDGs 달성이라는 두 가지 분야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SDG 8(경제성장과 일자리)의 경우는 기업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분야²⁴⁾이자 동시에 향후 기업에 잠재적인 기회 분야로 지목되어

24)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영향력 인식은 업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에너지, 유틸리티, 광업 분야의 기업은 SDG 7(에너지 보급)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화학

가장 관심이 높은 목표임이 확인되었다. 일자리 제고는 기업과 사회 모두에 영향력을 미침에 따라 향후 대부분의 산업 분야의 참여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SDG 1(빈곤 퇴치), SDG 2(기아 종식), SDG 6(물과 위생), SDG 10(불평등 해소) 등의 목표들은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향후 기회 측면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타나 기업들의 관심 분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이 SDG와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들 간의 답변이 엇갈렸다. 기업의 1%만이 17개 전 목표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 지표 수립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 33%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부 목표에 대해서, 11%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 목표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계획과 지표 수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영향평가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기업들이 SDGs의 전 분야에 대해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기업 비즈니스 관련 분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PWC의 설문조사는 SDGs 대응을 위해 현재, 또는 앞으로 5년 후인 2020년까지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SDG에 대한 기업의 높은 인지도에 반하여 실제적인 대응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2%의 기업이 본인들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SDG 목표를 파악했다고 했으며 34%가 SDG 관련 프로젝트를, 29%가 SDG와 관련한 기업 목표를 설정 중이라고 밝힌 반면, 22%는 여전히 아무런 활동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SDGs

분야 기업은 SDG 13(기후변화)을 첫 번째로 꼽는다(PWC, 2015).

대응은 다소 미미한 수준이지만 5년 후인 2020년까지의 계획을 놓고 본다면 대응 확대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90%가 향후 5년 내에 활동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2) UN글로벌콤팩트(UNGC) 캐나다 민간부문 조사

UN글로벌콤팩트(UNGC) 캐나다 사무소는 캐나다 기업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SDGs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Global Compact Network Canada, 2016). 캐나다 기업들이 향후 SDGs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들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다. 동 조사는 2015년 10~12월에 걸쳐서 민간/공공 기업, 시민단체 등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기업은 오일·가스, 광업, 화학, 건설, 엔지니어링, 교통, 서비스, 식품, 음료, 상업, 부동산 등 총 34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총 50개 응답 기업 중 2/3가 UNGC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조사 대상은 민간기업(42%), 공공기업(37%)뿐 아니라 NPO/NGO(11%), 학계(5%) 등 다양하며,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구성되었다(Global Compact Network Canada, 2016).

응답자들은 총 4개 분야에서 SDGs 17개 목표 중 상위 5개의 목표를 순위대로 선정하였다. 4개 분야는 SDGs 목표 중 캐나다 내 주요 목표, 전 세계적 주요 목표, 조직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 관련 목표와 조직 내 주요 목표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표 3-5〉 UNGC 캐나다 민간부문 설문 문항

분야	설문 문항
캐나다 내 주요 목표	1. 캐나다 내 관련 기관들이 함께 집중해야 할 캐나다 내 주요 이슈가 무엇인가?
전 세계적 주요 목표	2. 캐나다 내 관련 기관들이 함께 집중해야 할 전 세계적인 주요 이슈가 무엇인가?
기업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 관련 목표	3. 이미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SDG는 무엇인가?
기업에 있어서 주요 목표	4. 귀하의 조직/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SDG 목표는 무엇인가?

자료 : Global Compact Network Canada(2016).

SDGs는 SDG 8(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과 SDG 9(인프라 구축과 산업화)로 나타났다. 캐나다 민간부문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이자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경제성장 과 일자리 부문을 꼽았다. SDG 8은 유일하게 모든 분야에서 상위 우선 순위 안에 포함된 목표로서 기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반 및 전 세계적

〈표 3-6〉 GCNC 민간부문 조사에 따른 SDGs 목표 순위

순위	캐나다 내 주요 목표	전 세계적 주요 목표	기업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 관련 목표	기업에 있어서 주요 목표
1위	7. 에너지 보급	2. 기아 해소	8.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8.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2위	8.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1. 빈곤 퇴치	4. 양질의 교육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3위	10. 불평등 해소	6. 깨끗한 물과 위생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10. 불평등 해소
4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13. 기후변화 대응	10. 불평등 해소	13. 기후변화 대응
5위	13. 기후변화 대응	3. 보건 증진	7. 에너지 보급	7. 에너지 보급
6위	4. 양질의 교육	8.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11. 지속 가능한 도시	4. 양질의 교육

자료 : Global Compact Network Canada(2016).

으로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DG 9의 경우에도 기업이 진행 중인 사업 관련 목표 및 기업 내 주요 목표로 상위에 지목되었으며 캐나다 주요 목표로도 선정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동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SDGs 수행을 위한 민간부문의 영향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SDG 관련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8.5%만이 SDGs 관련 영향 평가 수행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SDGs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비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 대부분은 아직까지 캐나다 내 기업들이 SDGs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실제적인 방법, 사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Corporate Citizenship 기업 대상 설문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 Corporate Citizenship은 기업의 SDG에 대한 인식 및 향후 활동 계획 정도를 확인하고 기업의 SDG 달성 기여 방안을 찾고자 2015년 8월, 200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Corporate Citizenship, 2015). 본 조사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설문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동 조사에서도 PWC의 기업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는 높았으나 실제적인 행동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SDGs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25%가 현재까지 관련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응답하였

〈표 3-7〉 Corporate Citizenship의 기업 대상 SDGs 관련 설문 문항

	질문
인지도	1. 당사의 SDG 이해도 수준과 관련 활동은 어느 정도입니까? a. SDG를 알고 있으나 관련 계획은 세우지 않았음 b. SDG를 알고 있으며 모니터링, SDG 대응 준비 등 적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 중임 c. 비즈니스 관련, 범분야 활동, SDG 관련 협업에 참여하고 있음 d. 기타
활용 방안	2. SDG 관련하여 향후에 당사가 추진할 계획인 활동은 무엇입니까? a. SDG 달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주체(NGO, 정부, 기업)와의 협력 b. 조직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검토하기 위해 SDGs를 활용 c. 영향모니터링, 평가, 보고에 SDGs를 적용 d. 기업 정책과 실행에 있어 SDGs를 벤치마킹 e. SDGs를 활용한 전략개발
제약 요인	3. 민간부문이 SDG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a. NGO와의 범분야 파트너십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b. 민간분야와의 협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 c.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지원 d. 비즈니스 그룹 전반에 걸쳐 충분한 참여

자료 : Corporate Citizenship(2015).

다. SDGs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의 40% 역시 아직까지 관련 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응답해 기업의 실제적인 참여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SDGs와 관련한 연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 본인의 기업이 SDGs 목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다른 주체(NGO, 정부, 기업)와의 협력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66.7%로 가장 많았고 조직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전략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56.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향모니터링, 평가, 보고에 SDGs를 적용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9.2%로 나타나 보다 관심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Corporate Citizenship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SDGs를 기업의 전략 개발에 활용할 것과 기업-정부-NGO 등 관련 주체들의 파트너십 수립을 통한 이슈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SDG Compass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SDGs 도입 확대 필요성과 SDGs 지표를 활용한 기업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국내 기업의 SDGs 관련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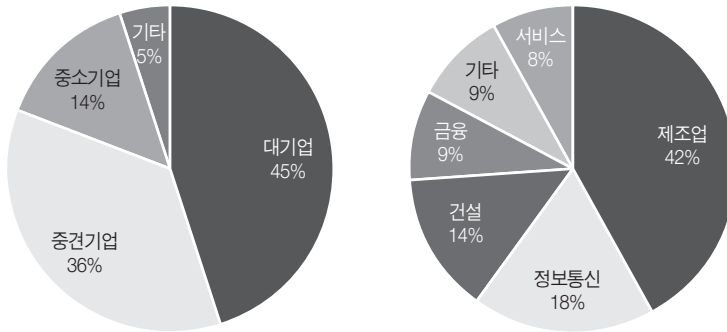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해도와 SDGs 달성을 위한 기업 차원의 계획을 알아보고자 2016년 9~10월에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크게 기업의 일반현황, SDGs 전반에 관한 설문, 경제산

〈표 3-8〉 SDGs 관련 인식 및 여건 조사를 위한 기업 대상 설문 문항 구성

	설문 내용
일반 현황	기업 규모, 직원 수, 설립연도, 주요 업종, 사회공헌 담당부서 유무, 관련 협회 가입 여부
SDGs 관련 전반적인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이해 정도, SDGs 이행을 위한 회사 차원의 대응 방안 유무 - 전체 17개 목표들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목표 (ii) 회사의 전략상 중요한 목표 (iii) 회사 비즈니스와 관련성 높은 목표 (iv) 회사의 미래 비즈니스 기회 예상되는 목표
경제산업 부문 SDGs 관련 세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산업 부문 목표인 SDG 8(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SDG 9(인프라, 산업화, 촉진)의 세부 목표들 중 다음 사항에 대한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목표 (ii) 우리나라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iii) 회사 입장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목표 (iv) 회사가 준수하기 어려운 목표 (v) 국가 차원의 이행에 회사의 기여가 기대되는 목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 설문 응답 기업의 기본 사항 분포(규모,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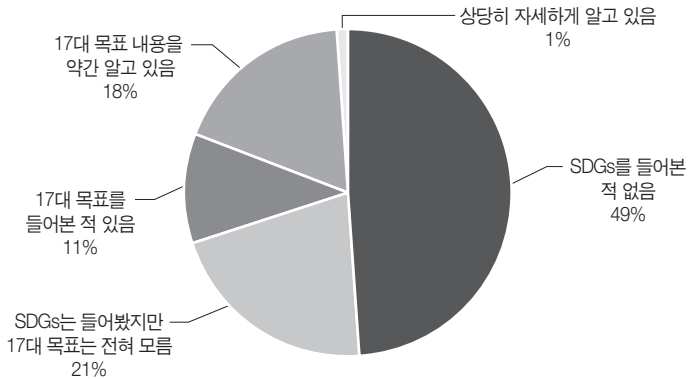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업 부문인 SDG 8과 9에 대한 세부 설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SDGs의 채택 경위와 의의, 내용에 관한 개요를 문항 전에 추가하여 SDGs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기업의 응답을 돕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업의 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 기획 담당 부서 중심으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92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응답한 기업들 중 45%가 대기업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36%와 14%를 차지한다(〈그림 3-1〉 참조). 업종별로는 제조업(42%)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정보통신(18%), 건설(14%), 금융(9%)이 따르고 있다.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보다 수적으로 약간 우세하나,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여 큰 차이는 없었다.

응답 기업들의 SDGs 17대 목표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그림 3-2〉 참조). 응답의 약 절반인 49%가 SDGs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하였으며, 약 21%는 SDGs는 들어봤지만, 17대 목표는 전혀 모른다고 답하였다. 17대 목표 내용을 약간 알고 있다는 기업은 18%, 상당히 자세히 알

〈그림 3-2〉 설문 응답 기업의 SDGs 17대 목표 관련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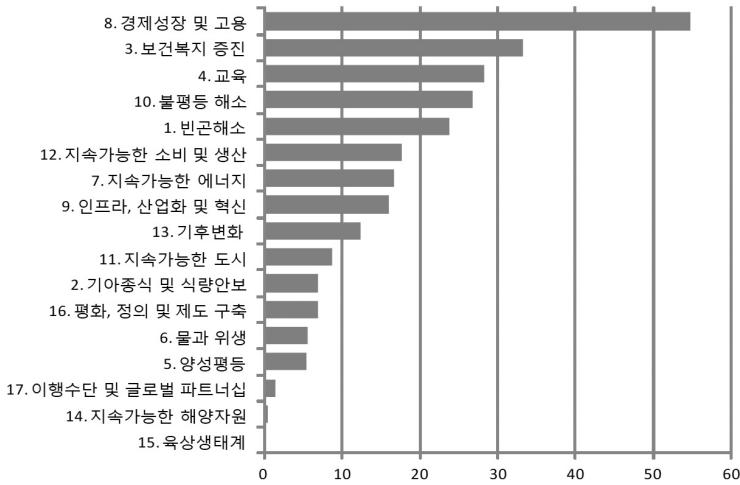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고 있다는 응답(1%)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의 23%만이 SDGs 이행을 위한 회사 차원의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전략 및 계획, 인력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 배정이나 신규 사업 개발 측면에서는 아직 SDGs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응답 기업들은 전체 17대 SDGs 중 국가 및 회사 차원 모두에서 SDG 8(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답하였다(〈그림 3-3〉과 〈그림 3-4〉 참조).²⁵⁾ 그만큼 기업들은 17개 목표들 중 경제성장과 고용에 관한 목표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SDG 8 이외에 SDG 3(보건복지 증진)과 SDG 4(교육), SDG 10(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목표라고 답하여, 기업들도 국가적으로는 사회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 차원에서는 SDG 9(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와 SDG 12(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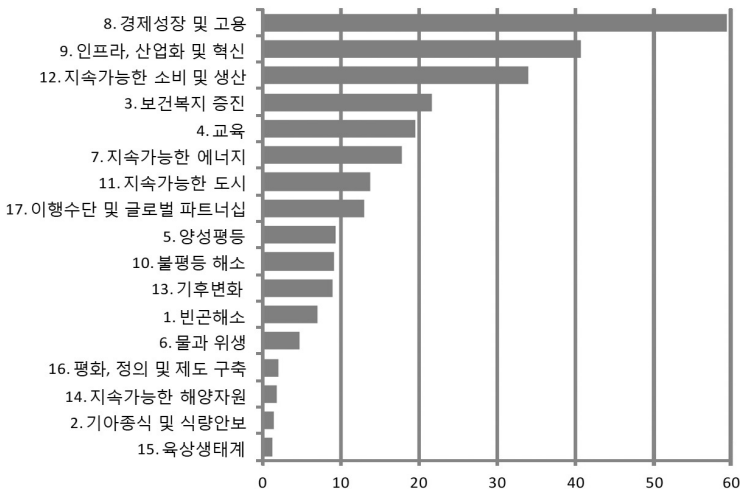
25) 순위별 응답을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합산했다.

〈그림 3-3〉 응답 기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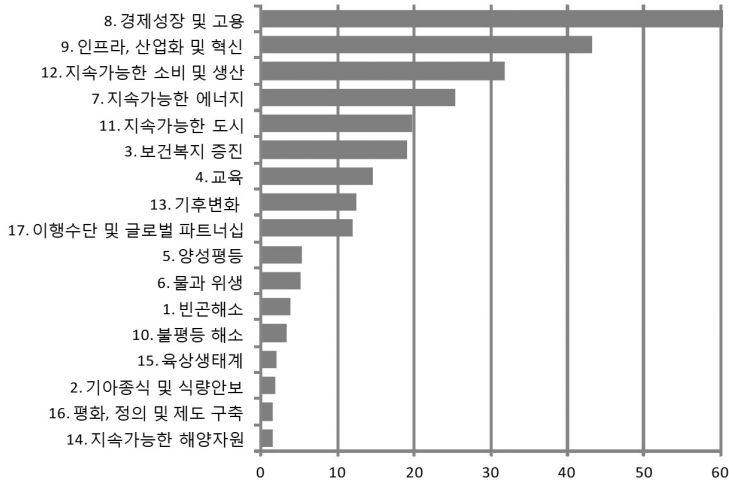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4〉 응답 기업들이 회사의 전략상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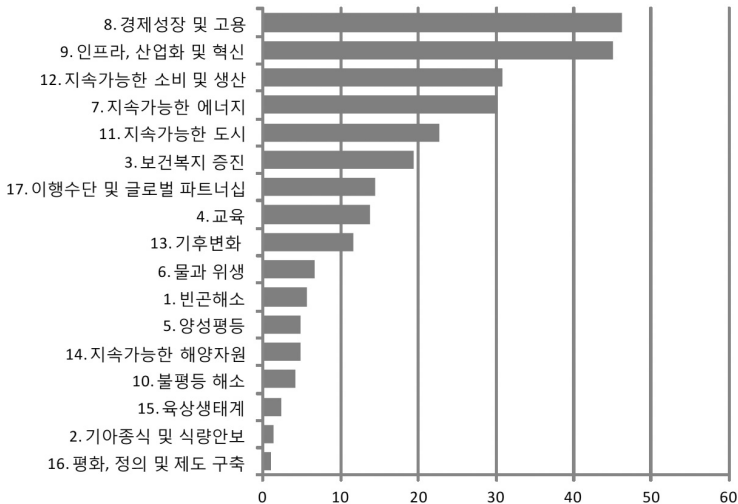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5〉 응답 기업들이 회사의 비즈니스와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6〉 응답 기업들이 회사의 미래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목표
순위



자료: 저자 작성.

산)가 전략상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가 SDGs 17개 목표들 중 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경제산업 부문 목표로서 SDG 8과 SDG 9를 설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각 회사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현재의 관련성이나 미래 기회 관점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그림 3-5〉와 〈그림 3-6〉 참조). 즉, SDG 8(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SDG 9(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 SDG 12(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SDG 7(지속가능한 에너지),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이 각자 회사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현재 가장 관련성이 높으며,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4.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목표 단위 분석 체계

UN은 각국이 SDGs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HLPF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별 자발적 검토보고서의 작성 가이드라인²⁶⁾을 제공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서론, 검토 준비 방법론 및 절차, 정책 및 이행여건, 이행수단, 향후 계획, 통계 자료, 결론 등 각 국가들이 검토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표 3-9〉 참조).

동 가이드라인의 항목들 중 ‘정책 및 이행여건²⁷⁾’은 SDGs의 국내이행의 현 상황과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에 관한 이슈들을 정리하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SDGs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제시

26) Proposal for voluntary common reporting guidelines for Voluntary National Reviews at the HLPF.

27)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표 3-9〉 UN이 권고하는 SDGs 이행 여부 관련 국별 자발적 검토보고서의 내용(안)

항목	내용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우선순위 및 목표, 이들과 SDGs의 관계, 핵심 과제 등 국가 상황 요약
검토 준비 방법론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 범위, 깊이, 한계점 등 방법론 · 검토 절차에 관한 정보 - 검토에 참여한 정부부처 범위, 의회 참여 여부, 국가 평가/감독 기관 참여 여부, 시민사회 및 산학 관계자의 참여 정도, 자문 청취 여부 등 - 검토에 투입된 자원 활용 여부 및 자원의 종류 - 기존 국가 보고서의 활용 방법
정책 및 이행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에 대한 주인의식 고양 - 국가 및 지방 정부, 의회,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 등의 SDG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행 참여 촉진 · 국가 상황에 SDGs와 목표들을 적용하고 이행하려는 국가적 시도 - 국가 법·제도,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에 SDGs를 통합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 - SDGs의 이행 시 경험하는 주요 도전과제 및 애로사항 - SDGs를 이행하는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노력 ·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영역(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 - 통합의 방법 및 통합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설계 및 이행 방법 - SDGs 이행에 있어서 2030 의제의 다른 원칙들(i.e. 포용성 등)의 류류화 진단 · 목표 - 모든 SDGs의 현황 및 이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핵심 원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 SDGs의 기준선 설정 여부 및 기준선 설정의 장애요인 - 선정된 몇몇의 SDG와 목표들에 대한 심층 분석 - 추세, 성과, 도전과제, 쟁점, 경험을 토대로 하여 기존의 간극 및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동원된 조치 확인 - 간극, 해결방법, 모범사례, 자문/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의 확인 - 우선순위가 확인된 목표들에 대한 국제 공인 지표들의 검토, 이를 보완할 국가 및 지역 지표 선택 가능 · 해당 연도에 HLPF가 중시하는 중점 주제와 관련 있는 절차와 이니셔티브의 분석 · 2030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적용한 제도적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 -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정부부처, 기관, 비정부기구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는 방법 및 조정 담당 기관에 관한 정보 - 다양한 정부부처와 기관 사이에 책임성을 배분한 방법에 관한 정보
이행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수단의 활성화 방법, 이행의 장애요인, 추가적인 필요 자원 - 재정지원, 역량강화 수요, 데이터 및 통계 지식 공유, 기술 및 파트너십 등의 차원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의제의 이행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향후 계획
통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위원회가 제안하는 국제 SDG 지표 및 지역/국가 단위에서 확인된 추가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지표 · 통계 데이터가 국가 통계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되었는지 여부를 강조하고 지표에 대한 공식 통계 데이터의 주요 간극을 정확히 파악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조사결과, 시사점의 요약 - 검토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이슈, 검토 과정에서 얻은 교훈, 향후 검토 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지원, 가이드라인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 등

자료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9768Guidelines%20from%20SG%20report.pdf>(검색일 : 2016.6.2).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제도, 정책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SDGs 목표 달성 관련 시도들의 확인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통합과 주류화의 진단 및 방안 모색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각 목표들과 관련된 국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선(baseline)을 설정하고 각 목표들을 심층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종합적으로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각 계의 노력들을 조정하고 책임을 배분할 국가 제도적 메커니즘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이드라인이 명시하고 있는 이행여건 항목들을 중심으로 SDGs의 목표별 측정지표 분석 체계를 제시한다(〈그림 3-7〉 참조). 먼저, SDGs의 각 세부 목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SDGs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지속가능발전 지표와의 조응관계를 검토한다.

각 세부 목표의 분석이 완료되면, 세부 목표들과 관련된 국내 정부부처 및 기관을 이해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확인한다. 각 목표와 관련된 국가 정책 및 문서,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국제협정 등을 규명하여 이행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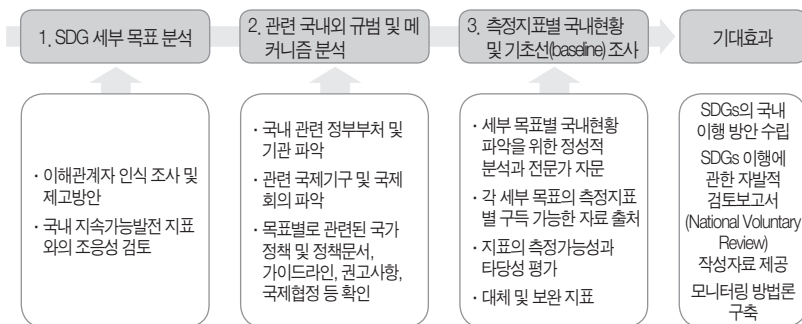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성적인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 세부 목표와 측정지표별 국내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측정지표의 변화 평가 시 기준이 될 기초선(baseline)을 설정한다. 기초선 조사를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 및 대체 지표의 설정 여부가 점검되고 제안될 수 있다. 보다 진전된 기초선 조사를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관련 정부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의 출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측정지표별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출처를 명시한다. 또한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지표를 탐색한다.

SDGs의 측정지표로 제시된 지표들이 국내적으로 모두 측정 가능하고 이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미 달성된 지표가 존재할 가능성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지표는 없으나 국내 맥락에서 유사지표 및 관련 지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글로벌 요구 수준의 데이터와 각 국가가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수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²⁸⁾

이와 같은 SDGs 지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SDGs의 목표별 국내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UN에 제출하는 국별 검토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향후 SDGs 이행 모니터링 방법론 구축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논의 지형에서도 SDGs 목표와 해당 측정지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IAEG-SDGs는 SDGs 전체 지표에 대해 데

〈그림 3-7〉 SDGs 목표별 측정지표 분석 체계



자료: 저자 작성.

28)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한 데이터는 UN 제시 기준보다 더 정확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석현호 외, 2014)는 견해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표 3-10〉 Tier 시스템에 따른 SDGs 측정지표의 구분

단계	분류 기준
Tier 1	개념적으로 분명한 지표, 방법론이 수립되어 있으며 데이터 취득이 용이한 지표
Tier 2	개념적으로 분명하며 방법론이 수립되어 있으나 데이터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지표
Tier 3	방법론이 수립되지 않고 개발 중인 지표

자료 : UN Statistical Commission(2016b).

이터 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수립 여부, 데이터 이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Tier 구분을 두고 있다(〈표 3-10〉 참조).²⁹⁾ 예를 들어, Tier 1은 데이터 측정방법론 및 국제적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고 동시에 정기적으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지표이며, Tier 2는 지표의 개념이 명확하고 데이터에 대한 획득 및 국제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나, 주기적인 데이터 생산은 어려운 지표로 분류된다(김수진, 2016). 이 개념은 각국의 SDGs 지표의 실제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29) <http://unstats.un.org/sdgs/iaeg-sdgs/>(검색일 : 2016.10.5).

제4장

경제성장 및 일자리 목표 분석 : SDG 8

1. 목표의 형성 배경과 의의

SDGs 시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제 환경은 MDGs 시대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는 국제사회 의제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MDGs에도 세부 목표에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³⁰⁾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³¹⁾’를 제공한다”라는 명시는 있었지만, 이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의 하위목표 중 하나로만 설정되어 있을 뿐 그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지 못했다. 또한 SDGs에서 강조되고 있는 포용적 경제 성장과 고용의 질, 특히 양자간의 관계는 다소 간과되고 있었으며, 극빈층과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고용정책, 즉 빈곤층을 위한 고용창출³²⁾의 중요성 또한 주목받지 못했다(김성규, 2013).

30)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31) decent work.

32) Pro-poor employment.

본 장에서는 SDG 8과 세부 측정지표를 분석하기에 앞서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사회적인 환경변화와 이에 따라 형성된 국제사회 담론들이 SDG 8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하고자 한다.

국제금융기구와 UN 산하 기구 등은 MDGs 설정 당시, 198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의 개도국에 대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인 구조조정프로그램³³⁾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새로운 개발전략의 도구로서 빈곤감소전략³⁴⁾에 합의한 바 있다. MDGs 시대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빈곤감소전략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정부가 노사와의 삼자협의를 통해 양질의 고용 창출을 통한 빈곤감소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설정, 지원해 오고 있다(ILO, 2012a). 결국 이는 고용 정책의 혁신이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글로벌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김성규, 2013).

한편 2006년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UN경제사회위원회 회의³⁵⁾에서 빈곤에서 벗어나는 지속가능한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일자리 확산’이 강조되었다(김성규, 2012). 이 회의는 “공정한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완전 고용과 생산적 일자리,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하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의 실현이 국가적, 국제적 거시경제 정책의 중심 목표이자 빈곤해소 전략의 중심 목표”라는 선언을 채택했다(ECOSOC, 2006). 즉, 세계적인 고용 위기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 형평성, 안전, 존엄성에 근거한 ‘생산적 일자리’ 확산에 노력해야 함

33)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34) Poverty Reduction Strategy.

35) The meeting of the U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ECOSOC).

을 공감, 강조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김성규, 2013).

이 선언문을 통해 201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키며, 이를 통해 ① 배고픔과 빈곤을 감소시키고, ②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개선하며, ③ 모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 ④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평한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김성규, 2012). 특히, 선언문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기한 ‘양질의 일자리’ 의제가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이를 ‘생산적 고용’과 ‘안정된 일자리’ 달성의 중요한 도구로 인정하였다(ECOSOC, 2006).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된 당시 SDG 세부 목표 형성 논의를 ‘Post 2015 의제를 위한 최우선 변화과제’와 ‘Post-2015 HLP 보고서 세부 목표’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⁶⁾ ‘Post 2015 의제를 위한 최우선 변화과제’에서 명시하는 사회적 기회는 일자리의 제공으로 부여될 수 있으며, 이때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최우선 변화과제에서는 경제적 구조 전환과 경제적 기회 확대가 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빈곤 및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ILO, 2012a). 따라서 고용부문과 관련하여 최우선 변화과제로 제시된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은 사회 빈곤, 소외층에 대한 보호와 이들의 고용창출의 측면보다는 경제구조 전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김성규, 2013).

한편, 고용 관련 Post-2015 HLP 보고서의 목표는 일자리와 생계수단 확보가 Post-2015 개발의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³⁷⁾ 즉 이 보고서는 일자리를 보다 독립적인 변수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일자

36) www.post2015hlp.org/(검색일 : 2016.9.15).

37) *ibid.*

리 창출이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한 매우 적극적이고도 유용한 방법이며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청년의 실업과 사회적 기회의 박탈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으로 몇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MDG 시대에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큰 환경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완전고용에 바탕을 둔 양질의 일자리 향유는 개발의 목표이자 권리’라는 담론의 보다 적극적인 반영의 결과이며, 아울러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숫자를 고려한 현실적인 요구의 반영이기도 하다(ILO, 2013).

이러한 배경하에 SDG 8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으로 설정되었다.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관련된 환경적 사회적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고용에 관한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하며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결국 해당 목표는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지속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속성과 포용성은 목표가 경제적 지수 향상 자체(양적인 소득증대)에 있지 않고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의 가치 회복에 바탕을 둔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세부 목표 및 측정지표 분석

(1) 세부 목표와 주요 개념

SDG 8은 본 보고서 제3장의 해외 및 국내 기업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업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분야이자 동시에 향후 기업에는 잠재적인 기회 분야로 인식된다. 이를 통해 고용과 일자리 문제, 혁신과 기업환경은 기업과 사회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며 따라서 향후 대부분 산업 분야의 참여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적이며 포용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포용성을 바탕으로 할 때 기업도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2016년에 개최된 제47차 UN 통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된 SDG 8의 세부 목표와 주요 개념은 <표 4-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세부 목표를 분석해 보면, 정량적인 경제 지수 높이기, 무역을 위한 원조, 금융역량 강화와 더불어 혁신을 통한 경제적 생산성 향상, 질 높은 고용창출, 기업가 정신, 영세·중소기업 육성, 청년실업 감소,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간착취 근절, 이주노동자, 고용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등의 이슈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SDG 8 세부 목표의 설정에는 이전의 다양한 글로벌 논의와 국제기구 활동의 연관성이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해 볼 수 있다. UN글로벌 콤팩트(UNGC)는 해당 세부 목표의 배경과 사회경제적 맥락을 국제노동기구(ILO), UN세계관광기구(UNWTO) 등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을 통

〈표 4-1〉 SDG 8의 세부 목표와 주요 개념

SDG 8의 세부 목표	주요 개념
8.1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1인당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특히 최빈국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간 7% 이상으로 지속한다	경제성장, GDP 성장률
8.2 다양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을 높인다. 특히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혁신을 통한 경제적 생산성 향상
8.3 생산적 활동, 질 높은 고용 창출, 기업가 정신, 창조와 혁신을 지원하는 발전 지향적 정책을 진흥. 또한 금융 서비스 개선을 포함하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식화 및 성장을 장려한다	질 높은 고용창출, 기업가 정신, 영세·중소기업 육성
8.4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10개년 계획(10YFP)”에 따라 선진국이 앞장서서 경제성장이 환경악화를 수반하지 않도록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에서 범세계적인 자원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남녀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동일노동 동일 임금
8.6 고용, 교육, 연수 중이 아닌 청년들의 비율을 2020년까지 현격히 감소시킨다	청년실업 감소
8.7 최악의 아동 노동을 금지 및 제거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추진하고, 강제노동을 근절하며, 2025년까지 소년병의 징집과 사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종식시킨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및 인간착취 근절
8.8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주 노동자(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이주노동자, 고용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8.9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화와 지역 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 관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2030년까지 수립·집행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
8.10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내 금융역량 강화
8.a 개도국, 특히 최빈국을 위해 “최빈국 무역 관련 기술협력 통합 구조(EIF)”를 포함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
8.b 2020년까지 범세계적인 청년 고용전략을 개발·운용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을 이행한다	청년고용, ILO 세계일자리협약

자료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해 정리하고 있다.³⁸⁾

세부 목표 8.3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해 ILO는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예컨대, ILO는 이미 1988년 국제노동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02년에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 프로그램, 2009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SDG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 지향 정책추진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³⁹⁾

또한 남녀의 완전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달성을 세부 목표로 하는 8.5는 전 지구적 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 고용과 직업교육, 노동환경을 강조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⁴⁰⁾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⁴¹⁾ 세부 목표 8.6 형성 관련, 이미 MDGs에서도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이의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는 통계 지표로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이 활용된 바 있다. ILO의 2005년 “양질의 일자리로 향하는 ILO 행동계획” 채택과 이 행동계획의 일부로 작성된 청년 고용, 불완전고용, 실업에 관한 보고서를 주목할 수 있다.⁴²⁾ SDGs에서 명시된 고용, 교육, 연수 중이 아닌 인구(NEET)⁴³⁾ 통계 고려는 동 보고서를 통해 반영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38) www.unglobalcompact.kr(검색일 : 2016.9.26).

39) *ibid.*

40)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41) www.unglobalcompact.kr(검색일 : 2016.9.26).

42) *ibid.*

43)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한편, 세부 목표 8.9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한 정책 이행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02년 UN세계관광기구(UNWTO)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한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관광지에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 및 문화 유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활동의 형태를 다양화하며 시장과 상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업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⁴⁴⁾ UNWTO는 2014년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관광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밝혔으며, 세계무역의 주된 동력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관광이 고용을 추동하며 개도국과 최빈국에서 외환거래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뒷받침된다.⁴⁵⁾

세부 목표 8.b는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 개발 및 운용, 그리고 ILO의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 이행을 목표로 한다. 정책 개발 시 청년,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취약 계층 및 개인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실업과 불완전 고용의 문제에 특별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⁴⁶⁾ 이와 관련하여 ILO는 98차 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인 실업 및 불완전한 고용에 대응하고자 세계일자리협약을 채택했다. 2009년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결의안을 통해 회원국들에 동 협약의 충분한 활용 및 추진을 권장하기도 하였다(ECOSOC,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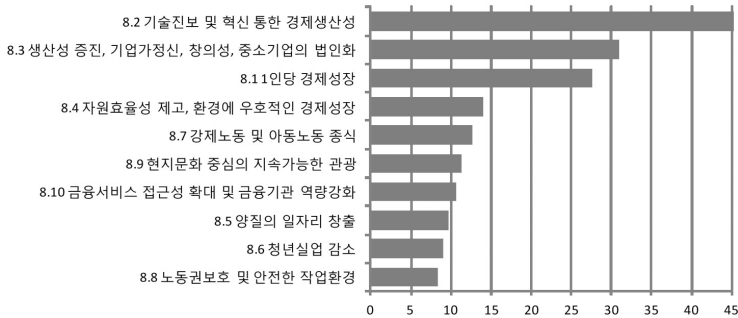
이상 제시된 세부 목표들을 분석해 볼 때 결국 SDG 8 세부 목표에는 무엇보다 기술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권 보호, 혁신과 영세·중

44) www.unglobalcompact.kr(검색일 : 2016.9.26).

45)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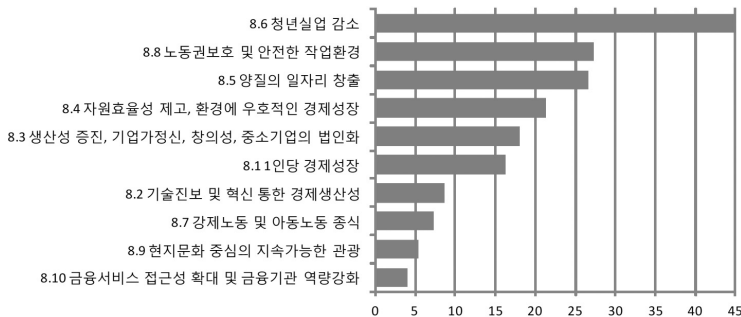
46) *ibid.*

〈그림 4-1〉 응답 기업들이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 응답 기업들이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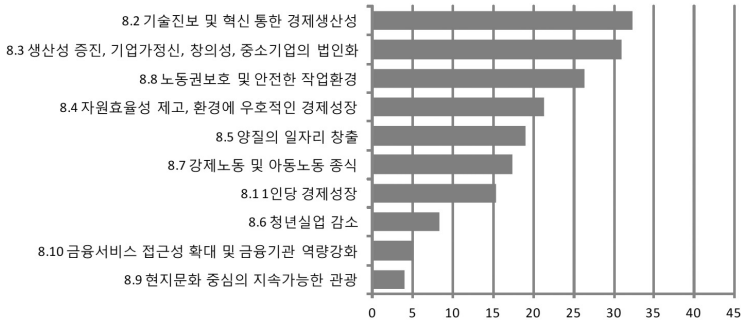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소기업의 육성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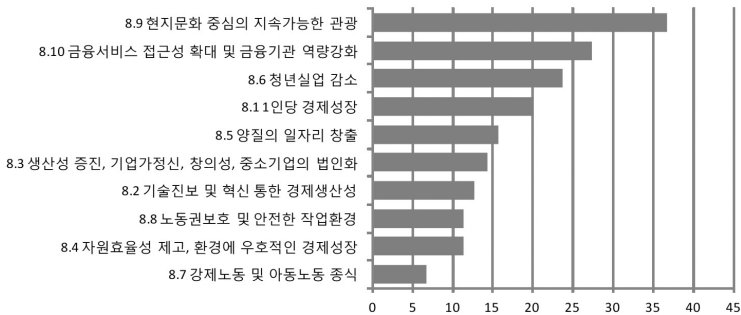
본 연구가 시행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된 SDG 8의 10개 세부 목표들 중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기술진보 및 혁신을 통한 경제생산성 달성’과 ‘생산성 증진, 기업가정신, 창의성, 중소기업의 법인화’, ‘1인당 경제성장 지속’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그림 4-1〉과 〈그림 4-2〉 참조). 반면, ‘청년실업 감소’, ‘노동권 보호 및 안전

〈그림 4-3〉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 가장 잘 준비된 목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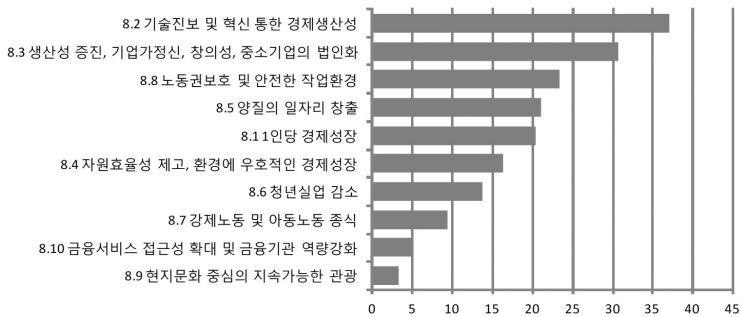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4〉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기 어려운 목표 순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5〉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이행에 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목표 순위



자료: 저자 작성.

한 작업환경’,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과 고용에 관한 사회문제 목표들은 우리나라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고용 관련 목표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최근 국내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 안정성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응답 기업들이 회사 차원에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목표와 국가 차원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목표들이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43〉~〈그림 45〉 참조). 즉, 기업들은 기술진보 및 혁신, 생산성 증진 및 기업가정신,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현지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금융기관 역량강화, 청년실업 감소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준수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2) 측정지표 분석

SDG 8의 세부 목표들은 각각 1개 또는 2개의 지표를 선정, 총 17개의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표 선정과 구성은 UN 산하기구, 다양한 국제기구 그리고 정부기관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닌 그동안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경제 협력체에서 활용해오던 지표들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세부 목표 8.2의 측정지표인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의 경우, OECD는 생산성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근무시간당 GDP⁴⁷⁾’라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세부

47) GDP per hour worked.

목표 8.5인 ‘생산적인 고용과 질 높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용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취업률을 해당 지표로 이미 활용해 왔다(OECD, 2016).

SDG 8의 측정지표의 주요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각 세부 목표별 정량적 측정지표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표에서 직업,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이주 여부에 따른 데이터가 요구되고 있는 등 각국의 이행 지표 설정에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SDGs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돕기 위하여 데이터의 분해(disaggregation)와 보고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

〈표 4-2〉 SDG 8번 세부 목표별 측정지표

세부 목표	측정 지표
8.1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8.2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8.3	8.3.1 성별에 따른 비농업분야의 비공식부문 고용 비율
8.4	8.4.1 물질발자국(MF), 1인당 MF, GDP당 MF 8.4.2 국내물질소비량(DMC), 1인당 DMC, GDP당 DMC
8.5	8.5.1 직업, 연령, 장애에 따른 여성, 남성 취업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8.5.2 성별, 연령, 장애에 따른 실업률
8.6	8.6.1 교육, 고용, 연수 중이 아닌 청년(15-24세) 비율
8.7	8.7.1 성별, 연령에 따른 5-17세 아동 노동 비율과 노동자 수
8.8	8.8.1 성별, 이주 여부에 따른 치명적, 비치명적인 산업재해의 발생률 8.8.2 ILO에 따른 노동권의 국가 준수의 증가(성별, 이주상대별)
8.9	8.9.1 관광 관련 GDP(전체 GDP 대비 비율 및 성장률 기여도) 8.9.2 관광산업 종사자 수(성별에 따른 전체 직업 수 대비 비율과 직업 증가율 기여도)
8.10	8.10.1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과 ATM 수 8.10.2 성인의 금융기관 계좌 보유 비율
8.a	8.a.1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승인액과 지출액
8.b	8.b.1 전체 정부 예산과 GDP 대비 사회보호 및 고용 프로그램 지출 비용 비율

자료 :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

속하고 있다.

3장에서 소개한 SDGs 측정 지표의 Tier 체계 기준에 따르면 SDG 8의 17개 측정 지표들 중 10개가 Tier 1에, 6개가 Tier 2에 속한다고 분석되어, SDG 7(66.7%), SDG 9(66.7%)에 이어 가장 높은 Tier 1 지표 비율(58.8%)을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SDG 8의 세부 지표의 개념과 국제적 기준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각 회원국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김수진, 2016). 자료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SDG 8의 측정 지표들은 9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세부 지표들 중 '8.8.2 성별 이민신분별 ILO 협약과 국내 입법에 기반하여(단체교섭과 교섭단체 구성의 자유 등) 노동권의 국내적 보장 증대' 관련 데이터는 IAEG-SDGs에 의해 획득이 매우 어려운 지표로 분류된다(김수진, 2016).

IAEG-SDGs의 Tier 체계에 의한 SDG 8 세부 지표의 분석 현황을 보면, 국가포함 수준⁴⁸⁾의 측면에서 대부분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데이터 빈도 수⁴⁹⁾의 경우 8.7.1의 성별, 연령별 노동 아동의 수 및 비율, 8.6.1 15~24세 청년 중 교육 또는 고용,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인구 비율 등이 미흡으로 분류된다. 이는 자료의 확보와 세부 측정 방법의 어려움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8.10.2 15세 이상 성인 중 은행, 기타 금융기관, 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 비율의 국가포함 수준은 매우 우수함에 비해 데이터 빈도 수는

48) 국가포함수준이란 총 193개 UN 회원국 중 2000~2015년 사이에 한 해라도 데이터가 제공되는 국가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49) 데이터 빈도 수란 각 지표별로 2000~2015년 사이에 한 해라도 데이터를 제공한 193개 UN 회원국들의 평균 데이터 제공 연수로 정의되며, 이는 각국의 데이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표 4-3〉 SDG 8의 주요 측정지표 데이터 활용가능성 현황

지표	국가포함수준		데이터 빈도수		담당기관
	%	평가	yrs	평가	
8.1.1 실질 GDP 성장률	95	매우 우수	14.83	매우 우수	세계은행
8.2.1 취업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88	매우 우수	16	매우 우수	세계은행
8.5.2 성별, 연령별, 장애 여부별 실업률	92	매우 우수	13	매우 우수	ILO
8.6.1 15~24세 청년 중 교육 또는 고용,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NEET) 인구 비율	60	우수	3.36	미흡	세계은행
8.7.1 성별, 연령별 노동 아동의 수 및 비율	57	우수	1	매우 미흡	UNICEF
8.8.1 성별, 이민신분별 치명적 혹은 비치명적 직업 관련 부상빈도 비율	47	미흡	8.88	우수	ILO
8.10.1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과 ATM 수	93	매우 우수	9.82	우수	세계은행
8.10.2 15세 이상 성인 중 은행, 기타 금융기관, 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 비율	78	매우 우수	1.85	매우 미흡	세계은행
8.a.1 무역을 위한 원조(AfT) 약정 및 배분	76	우수	14.41	매우 우수	OECD-DAC

자료 : IAEg-SDGs(2016), 김수진(2016)에서 재인용.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는 많지만, 제공한 기간이 길지 않음을 의미한다.

각 세부 목표의 국내 이행 가능성은 측정 지표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다. OECD, 세계은행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들은 국가 간 혹은 연도별 비교 가능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혹은 각국의 해당 지표 모니터링과 통계를 기반으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때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는 단순히 임금이라는 경제적 정량적 지표 외 각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문화, 환경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는 각국의 맥락에 맞는 새로운 개념

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ILO가 장기간 수립해 온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규정과 해당 지표 개발 과정을 참조할 수 있다.

8.2.1 지표(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의 경우, 가장 일반적이며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생산성 지표이다. 그런데 이 측정지표의 경우 생산성의 정량적 수준만을 측정하며 기술요소, 혁신 요소 등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입요소로서 노동을 중시하는 반면, 경제적 생산성에 기여하는 다른 투입요소를 간과할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닌다.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언급하고 있는 세부 목표 8.5의 경우, 측정지표로 직업, 연령, 장애에 따른 여성, 남성 취업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과 성별, 연령, 장애에 따른 실업률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측정지표는 통상 15에서 64세까지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세부 목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성별, 장애에 따른 취업률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각국의 과제로 남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측정 지표 8.6.1의 교육, 고용, 연수 중이 아닌 청년(15~24세) 비율의 경우, 주로 고용되지도, 교육 혹은 연수를 받지도 않는 청년(NEET)의 비율로 대체된다. 해당 지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이며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런데 해당 지표의 경우 각국에서 이해하는 NEET에 대한 개념, 대상 범위 및 측정 기준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서만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

세부 목표 8.8을 측정하는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성별, 이주 여부에 따른 치명적, 비치명적인 산업재해의 발생률'과 'ILO에 따른 노동권의 국

가 준수 증가(성별, 이주상태별)’는 노동환경과 노동의 질 측면에서 주요한 지표이다. 특히 이주 여부에 따른 산재율, 이주 상태별 노동권의 준수 여부는 이전 해당 분야 측정 범위보다 더 정교화된 측정 요소이다. 하지만 해당 지표는 이민자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닌다. 국내 이민자에 대한 범주의 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국가별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이들의 노동 환경, 노동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3. 국내외 규범 및 가이드라인 분석

SDGs 이행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는 통상 국제기구, 정부기구, 민간기업 등이 언급된다.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기구의 이행 방안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 간 협조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때 기업은 주어진 이행 방안의 수동적 담지자가 아닌 규범 마련과 이행을 위한 실질적 협조자와 행위자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규범 및 가이드라인 분석은 결국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과 이행을 위한 주체 설정, 그리고 이들 간의 소통이 국제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 국외 규범 및 가이드라인

SDG 8은 고용, 실업 관련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다양한 사회경제 문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범분야 의제이다. 즉, SDG 8의 세부 목표들 중 특

히 고용 문제는 법적, 환경적, 노동 인권적 목표들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주요 이슈이며, 포용적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주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과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강화, 실직자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규범 및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SDG 8의 이행과 관련하여, ILO는 사회적연대경제(SSE)와 양질의 일자리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ILO, 2011a). 구체적으로는 ILO의 ‘양질의 일자리 지표’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ILO, 2012b).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개념과 형성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ILO는 1999년 제87차 국제노동회의⁵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자유, 공평, 안전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조건하에 남녀 모두에게 괜찮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기회’로 정의했다(김성규, 2013). 즉, 양질의 일자리는 특정 부문의 직업이나 직업의 경제적 사회적 보상 조건을 언급하는 용어가 아닌 사회적 기회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가치론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Anker et al., 2002). ILO가 양질의 일자리의 중요 요소로 ① 노동의 기회, ②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노동, ③ 생산적인 노동, ④ 노동에서의 평등, ⑤ 안전한 노동, ⑥ 노동에서의 인간 존엄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OECD, 2016).

이러한 ILO의 문제의식과 지향성은 완전 고용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SDG 8의 형성 배경이 되고 있다. 관련 논의에서 특징적

50) The 87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표 4-4〉 SDG 8 관련 국제기구의 주요 가이드라인

기관명	주요 가이드라인
ILO	- 사회적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Our common road towards Decent Work, 2011) - 양질의 일자리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Decent Work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UN-TFSSE	- 사회적연대경제와 지속가능발전 과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the Challen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14)
UNDP UNFPA UNOPS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

인 점은 고용과 사회보호 개념 간의 유기적 결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호를 기반으로 한 고용 정책이 장기적으로 높은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ILO, 2013). 예를 들어 사회보호 시스템의 구축과 결합된 직업훈련교육 및 시스템은 경기침체, 경제위기 시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아울러 합리적 노동력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성규, 2013).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절감 또한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SDG 8이 강조하고 있는 지속적이며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2) 국내 정책

SDGs의 국내 이행 노력은 국제 규범과의 조응성에 바탕을 둔 관련 국내 규범 및 가이드라인의 분석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국내 수준에서 어떤 목표를 우선 이행목표로 선정하는가와 이에 대한 이행전략의 마

런, 후속 이행 조치는 결국 국내 이행 주체의 특수성과 관련 정책 및 국가 발전계획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김태균 외, 2016). SDGs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국내 이해관계자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장에서는 SDGs의 국내이행 관련, 정부기구의 주요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SDG 8의 국내 이행관련 주요 정부 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을 꼽을 수 있다. SDG 8의 세부 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국내 유관 정부부처를 정리해보면 <표 4-5>와 같다.

SDG 8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정상 성장궤도 복위를 위한 경제 활력 강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의 구체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김태균 외, 2016).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 중견기업의 시장개척 역량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관련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일자리사업 효율화,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지원, 청년, 여성,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와 취업지원,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의 내실화 등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은 고용정책 방향 제시의 근간을 이룬다. 수립 절차를 보면, 우선 고용노동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가 협의한 후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 후 공표한다(고용노동부, 2010). 해당 계획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종합 실업대책과 함께 청년, 고령

〈표 4-5〉 SDG 8 관련 국내 정부부처

세부 목표	유관 정부부처
8.1 경제성장, GDP 성장	기획재정부
8.2 경제생산성 달성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8.3 영세, 중소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8.4 소비생산 10년 계획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8.5 청년, 장애인, 남녀 동일임금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8.6 청년실업 축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8.7 강제노동, 인간착취, 아동노동금지	고용노동부, 법무부, 법제처, 국민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8.8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고용노동부, 통일부, 법무부
8.9 지속가능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8.10 국내금융기관 역량강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8.a 개도국 무역원조 증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8.b 청년고용, ILO 협약 이행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제처

자료: 김태균 외(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자, 중소기업 등 대상별 중장기 고용안정 대책을 동시에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 2013)⁵¹⁾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특히 고용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SDG 8에 부합한다. 중기계획은 이후 2020국가고용전략(2010~2020)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다.

51) 고용정책기본계획은 국내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첫째, 경제사회적 국내의 여건 변화, 즉 국제적 무한경쟁과 지식경제로의 전환, 산업구조의 변화, 주 5일 근무의 정착,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에 주목한다. 이러한 외적 변수를 전제로 둘째, 국내 노동시장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의 불일치에 대해서 분석한다(관계부처합동, 2013).

2013년에 작성된 〈고용률 70% 로드맵〉은 우리나라 고용률 정체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최근 문서이다. 이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성과 청년의 경우 그 폭은 두드러진다(관계부처합동, 2013). 로드맵은 이러한 고용률 정체의 원인으로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내수, 서비스업의 성장기회가 제약당하고 있는 점,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2011년 기준 200만가량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근로조건의 하락도 진단된다. 또한 여성, 청년의 취업 애로요인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그간의 주요 고용정책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3).

해결책으로는 크게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성, 청년의 고용 증진,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통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

〈표 4-6〉 SDG 8 관련 정부부처 및 가이드라인

관련 정부부처	가이드라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발전계획(2014-2018)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
고용노동부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2004-2008) 2020 국가고용전략(2010-2020)
중소기업청(관계부처합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2011-2015)
관계부처합동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
관계부처합동	경제혁신 3개년계획(2014-2017)
관계부처합동	고용률 70% 로드맵(2013)

제고, 그리고 사회적 연대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제안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그러나 이상 언급된 정부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가 고용시장 상황,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의 노동기회 분석과 그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제시된 가이드라인과 실제 집행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여전히 있다. 이는 해당 정책의 집행을 위한 인력과 전문성 문제 등에서 비롯된다고 진단된다.

4. 국내여건 분석 및 기초선 조사

본 절에서는 SDG 8의 측정지표 관련 국내 여건을 정량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국제적인 상황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SDG 8의 국내 세부 지표 설정과 이행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조사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물론 SDGs 지표의 국내 적용 여부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성은 국내 통계와 평가 인프라 구축 상황 그리고 이행 점검 주체의 전문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영실, 2016).

기초선 조사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 및 주요 통계 조사 주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필요 시 OECD,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국제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OECD는 웹 서비스를 통해 회원국의 SDGs 세부 지표별 통계 현황을 정리, 공개하고 있다.⁵²⁾

〈표 4-7〉은 SDG 8의 주요 측정지표별 기초선 조사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SDGs 8의 주요 지표 현황과 개도국, 선진국 및 세계 평균과의 비교

52) SDG Indicators Global Database(<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표 4-7〉 SDG 8의 주요 측정지표별 기초선 조사 비교표

주요 지표			연도	세계 평균	개도국 평균	선진국 평균	한국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		2000	3.0	4.2	3.5	10.3
			2005	2.3	5.2	2.2	5.5
			2010	2.8	6.2	2.3	7.3
			2014	1.3	3.1	1.4	2.3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		1995~2000	2.1	2.8	2.3	4.2
			2000~2005	2.1	3.6	1.8	4.9
			2005~2010	2.6	5.2	0.9	5.2
			2010~2015	2.1	3.7	0.9	5.1
8.5.2	성별, 연령, 장애에 따른 실업률 (%)	총 실업률	2000	6.9	6.6	8.1	4.4
			2005	6.6	6.3	7.6	3.7
			2010	6.5	5.8	9.4	3.7
			2015	6.1	5.8	7.7	3.6
		성별 실업률	2000	6.6(남)/ 7.4(여)	6.4(남)/ 7.0(여)	7.8(남)/ 8.6(여)	5.0(남)/ 3.7(여)
			2005	6.2(남)/ 7.2(여)	5.9(남)/ 7.0(여)	7.4(남)/ 7.9(여)	4.0(남)/ 3.4(여)
			2010	6.1(남)/ 7.0(여)	5.3(남)/ 6.5(여)	9.9(남)/ 8.8(여)	4.0(남)/ 3.4(여)
			2015	5.8(남)/ 6.7(여)	5.4(남)/ 6.4(여)	7.8(남)/ 7.5(여)	3.7(남)/ 3.6(여)
		연령별 실업률	2000	4.9(성인)/ 15.4(청소년)	4.4(성인)/ 15.0(청소년)	6.7(성인)/ 17.5(청소년)	-
			2005	4.7(성인)/ 15.1(청소년)	4.2(성인)/ 14.7(청소년)	6.3(성인)/ 17.3(청소년)	-
			2010	4.8(성인)/ 14.9(청소년)	4.0(성인)/ 14.0(청소년)	7.9(성인)/ 22.0(청소년)	-
			2015	4.6(성인)/ 15.0(청소년)	4.1(성인)/ 14.6(청소년)	6.6(성인)/ 18.0(청소년)	-
8.7.1	성별, 연령에 따른 5~17세 아동 노동 비율과 노동자 수	아동노동 자 수	2012	167,956 (천명)	-	-	-
		아동노동 비율(%)	2012	10.6	-	-	-
8.10.2	성인의 금융기관 계좌 보유 비율(%)		2011	50.6	41.8	81.6	96.4
			2014	61.5	53.9	88.1	96.9

자료 : ECOSOC(2016), OECD 통계(stats.oecd.org)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치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량적으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지표, 즉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8.5.2 성별, 연령, 장애에 따른 실업률(%), 8.7.1 성별, 연령에 따른 5~17세 아동 노동 비율과 노동자 수, 8.10.2 성인의 금융기관 계좌 보유 비율(%) 등을 비교했다. 성별, 연령별 실업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성인과 청소년 구분보다

〈표 4-8〉 우리나라 연령 그룹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연령그룹별	2000	2005	2010	2015
계	4.4	3.7	3.7	3.6
15 ~ 19세	14.5	12.5	11.9	10.6
20 ~ 29세	7.5	7.7	7.8	9.1
20 ~ 24세	9.9	9.9	9.5	10.5
25 ~ 29세	6.0	6.4	7.0	8.1
30 ~ 39세	3.6	3.3	3.5	3.1
30 ~ 34세	4.0	3.7	4.2	3.3
35 ~ 39세	3.3	3.0	3.0	2.9
40 ~ 49세	3.5	2.5	2.5	2.3
40 ~ 44세	3.3	2.6	2.6	2.4
45 ~ 49세	3.7	2.5	2.3	2.2
50 ~ 59세	3.2	2.5	2.5	2.4
50 ~ 54세	3.2	2.3	2.3	2.0
55 ~ 59세	3.3	2.8	2.6	2.8
60세 이상	1.5	1.3	2.8	2.5
60 ~ 64세	2.3	2.1	3.4	2.8
65세 이상	0.6	0.7	2.4	2.4
15 ~ 64세	4.6	3.9	3.8	3.7
15 ~ 24세	10.8	10.2	9.8	10.5
15 ~ 29세	8.1	8.0	8.0	9.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검색일 : 2016.10.19).

는 각 연령 범주로 세분화되어 모니터링되고 있다.

〈표 4-7〉에 따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을 보여왔다. 실업률의 경우도 공식 통계로 보면 국제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다. 연령 그룹별로 분석해 보면(〈표 4-8〉 참조) 청년(15~24세) 실

〈표 4-9〉 SDG 8 주요 측정지표와 우리나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과제와의 조응관계

SDG 세부 목표	SDG 측정 지표	한국의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이행과제
8.1	8.1.1 1인당 GDP 연 성장률	
8.2	8.2.1 취업자 1인당 GDP 연 성장률	
8.3	8.3.1 성별 비농업분야의 비공식부문 고용 비율	3-1-① 일자리창출 및 혁신형 창업지원
8.4	8.4.1 물질발자국(MF) 8.4.2 국내물질소비량(DMC)	3-2-①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8.5	8.5.1 성별, 연령, 장애에 따른 평균 시간당 임금 8.5.2 성별, 연령, 장애에 따른 실업률	2-1-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3-1-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8.6	8.6.1 교육, 고용, 연수 중인 아닌 청년(15~24세) 비율	3-1-① 일자리창출 및 혁신형 창업지원 3-1-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8.7	8.7.1 성별, 연령별 아동 노동 비율과 노동자 수	
8.8	8.8.1 성별, 이주 여부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률 8.8.2 ILO 노동권의 국가 준수의 증가	2-1-② 고용-복지 연계 강화 3-1-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8.9	8.9.1 관광 관련 GDP 8.9.2 관광산업 종사자 수	2-2-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8.10	8.10.1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과 ATM 수	
8.a	8.a.1 무역을 위한 원조 승인액과 지출액	
8.b	8.b.1 전체 정부 예산과 GDP 대비 사회보호 및 고용 프로그램 지출 비용 비율	2-1-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2-1-② 고용-복지 연계 강화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업률이 다른 연령 그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SDG 8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인의 금융기관 계좌 보유 비율의 경우 개도국 평균은 물론 선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표 4-9〉는 SDG 8의 주요 측정지표와 우리나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이행 과제 및 성과지표와의 조응관계를 보여준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방향성과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비교는 SDGs 국내 이행 관련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방향과 국제기준의 부합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유관 정부 부처의 정책 문서를 통해 SDG 8의 이행 관련 우리나라의 이행 목표와 해당 지표를 도출할 수 있다(〈표 4-10〉 참조). 예컨대, SDG 8의 세부 목표들 중 고용 및 일자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발전계획에서 향후 2018년 대표산업 일자리 창출의 증가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24만개 창출, 2013년 기준

〈표 4-10〉 SDG 8의 일자리 관련 측정지표로서 역할이 가능한 국내 성과지표

주관부처	정책문서명	지표 및 주요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발전계획 (2014~2018)	대표 산업 일자리 창출 : 2012년 대비 2018년 종사자 수 연평균 3.0% 증가
고용노동부	고용률 70% 로드맵 (2013)	청년일자리 창출 : -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 -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24만개 창출, - 2017년까지 여성 고용률을 2013년 53.5%에서 61.9% 로 증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4), 관계부처합동(2013)을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표 4-1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국내 지표 현황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작성기관	환경부	통계청	정부합동	통계청
구성	14개 영역	15개 영역/60개 하위영역	15개 영역/65개 하위영역	12개 부문
(주요) 지표 수	84개	139개	705개	81개
모니터링 주기	2년	수시	수시	분기
모니터링 내용	추세/평가	추세	추세	추세/평가
자료제공	보고서	보고서/온라인	온라인	보고서/온라인

자료 : 박영실(2016).

53.5%이었던 여성 고용률을 2017년 61.9%로 증가 등을 중간 목표로 정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SDGs 이행 관련 국내 주요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삶의 질 지표 등을 꼽을 수 있다(〈표 4-11〉 참조).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 경제, 사회 요소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변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표 4-1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SDG 8 관련 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05 실업률
		1-2 노동	06 고용률
			07 근로시간(시간/월)
			08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09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1-3 남녀평등	10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11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2 관리직 여성비율

자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저자 재구성.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의 기초자료의 일관성이 적어 국가 간 수준을 비교하기 곤란한 점, 지표 선택의 적절성, 평가모형에 대한 신뢰성 검증의 어려움과 주관성 개입 등과 같은 한계가 지적된다(석현호 외, 2014; 박영실, 2016).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SDG 8과 연관된 지표는 사회 분야

〈표 4-13〉 국가주요지표의 경제 부문과 SDG 8 관련 지표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고용률	고용률 (OECD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비임금근로자 비율	고용주비율 자영업자비율 무급가족종사자비율	비임금근로자비율
			취업자의 산업 구성	서비스업취업자비율 취업자의 직업구성	제조업취업자비율 도소매/숙박업 취업자 비율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
		임금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한시적,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비율	한시적 근로자 비율 시간제 근로자 비율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근로형태별 임금차이	임금격차 성별 임금차이
			저임금근로자 비율	중위임금대비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저임금근로자비율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근로 조건	근로시간	근로형태별 근로시간 취업자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산업재해율	
			일자리만족도	임금만족도 일자리장래성만족도	
		노사 관계	노동조합조직률	근로손실일수	노동조합조직률 단체협약적용률

자료 : 국가주요지표(2014)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중 형평성 영역 내 제시된다(〈표 4-12〉 참조). 구체적인 지표로는 실업률, 취업률뿐만 아니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율,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비율 등 고용 조건, 노동의 질과 관련된 사항이 설정되어 있다.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주요 정책 수립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성과 중심 지표로서 주요 지표 139개를 선정하였다.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상황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류 체계를 보면, 국민의 복지와 국가 발전의 주요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국가주요지표에서 SDG 8과 관련된 지표는 경제부문의 고용과 노동 영역이며, 이는 다시 고용, 임금, 근로조건, 노사관계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표 4-13〉 참조). 특징적인 것은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그리고 국제지표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표 내용을 보면 실업률, 고용률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 일자리 질, 성별 임금 격차, 노동의 안전성 등 SDG 8에 설정된 세부 지표와 많은 부분 조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

인프라 및 산업화 목표 분석 : SDG 9

1. 목표의 형성 배경과 의의

SDGs의 아홉 번째 목표는 크게 인프라, 산업화, 혁신의 세 분야로 구성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산업화·혁신 분야의 발전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산업 내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한 경제적, 환경적인 도전과제들의 극복은 개도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선진국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과제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SDG 8을 통해서 이미 목표화되어 있으나 SDG 9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포용적인 경제성장은 경제성장을 통해 창출된 부가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성장을 통해 여성, 청소년, 장애인, 소수자 그룹 등 취약 계층이 충분한 소득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의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인

프라, 산업화, 혁신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포용성의 담보는 효과적으로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SDG 9의 세부 목표와 지표를 살펴보면 포용성을 내포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인프라 접근성 향상, 소규모 기업 확대,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등이 그 예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산업화 발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본 목표의 포용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다각적이고 지속적이며 자주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고부가가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장 동력의 창출, 기술 혁신,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SDG 9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자원효율성 추구하고 청정한 기술·산업 공정 및 인프라 개선, 혁신과 기술적 역량의 향상 등은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다.

인프라 구축은 산업 발전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 하는 데에 필요한 물리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은 개도국 경제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양질의 인프라 구축은 국제 무역과 개도국의 세계경제 참여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편입에 크게 기여한다(Zhan, 2015). 교통의 발전은 상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물류 및 저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산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인프라 발전은 작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증진하는 한편 정보 교환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을 한다. 정보통신과 광대역

네트워크의 확대 역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

산업화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 산업 부문의 확대는 경제적 다각화를 가능케 하고 기본재(농업, 임업, 어업, 광업) 및 서비스(은행, 보험, 통신, 무역, 교통)의 수요 확대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농업의 산업화가 이뤄질 경우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본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유통 및 농가공 확대와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일어나게 된다.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부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생겨나게 된다(UN Open Working Group, 2014).

제조업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증진,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주요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발전은 일자리 창출 효과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2009년 기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16%가 제조업에서 기인하였으며, 제조업 일자리로 인해 타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⁵³⁾ 그러나 산업화 진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SDG는 자원효율성 추구하고 친환경적인 기술 산업 발전을 산업화 목표의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산업화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혁신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기술 발전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 과학, 기술, 혁신(STI)은 생산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과 번영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EU, 2015). 혁신은 산업화와 인프라 구축이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기술발전을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

53) 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접속일 : 2016.7.11).

을 높이고 에너지, 물 등 주요 자원의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세부 목표 및 측정지표 분석

(1) 세부 목표와 주요 개념

제47차 UN 통계 위원회(2016년 3월 8~11일)가 최종 합의한 SDGs의 세부 지표안 중 인프라 및 산업화 목표(목표 9)에 대해서는 8개 세부 목표와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총 12개의 측정지표가 선정되었다. SDG 9의 세부 목표들과 각 목표가 표방하는 주요 개념들을 <표 5-1>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들은 크게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된 세부 목표들로 구분되며, 모든 세부 목표 내에 포용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국가 간 포용성 측면에서 최빈국 등 취약국을 특별히 배려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된 세부 목표들의 중요도에 관한 국내 기업 설문 결과는 세부 목표별 편차가 크지 않은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5-1>과 <그림 5-2> 참조). 즉, 중요도 측면에서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의 선호도 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고른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산업부문 GDP 확대’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소규모 산업체들의 금융접근성 제고’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특이한 점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이 국가적 경쟁력이 있다는 응답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 모두에서 2위를 차지하여 기업에 따라 체감하는 인프라 개

〈표 5-1〉 SDG 9의 세부 목표와 주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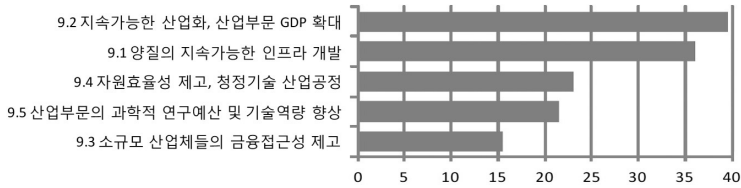
SDG 9의 세부 목표	주요 개념
9.1 경제발전 및 인간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초국경의 인프라를 포함한, 질 좋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	공평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 여건에 따라 고용 및 GDP 내 산업부문의 비중을 상당히 늘리는 한편 최빈국 내 비중은 두 배로 확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산업부문 GDP
9.3 (특히 개도국) 소규모 산업체 및 기타 회사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향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가치사슬 통합
9.4 2030년까지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적으로 청정한 기술·산업공정을 수용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고 산업을 보강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추구	청정 기술·산업공정
9.5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종사 근로자 수 및 민간·공공 부문 연구개발 지출을 상당 수준 늘리는 등, 2030년까지 모든 국가(특히 개도국)에서 산업 부문의 과학적 연구 및 기술적 역량 향상	혁신, 연구개발
9.a 아프리카, 최빈국, 내륙국, 군소도서국들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지원의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촉진	인프라 개발
9.b 산업다각화 및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돕는 정책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개도국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기술개발, 혁신
9.c 2020년까지 최빈국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상당히 늘리고 보편적이고 적정수준 가격의 인터넷 보급을 위하여 노력	정보통신기술

자료 :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발 수준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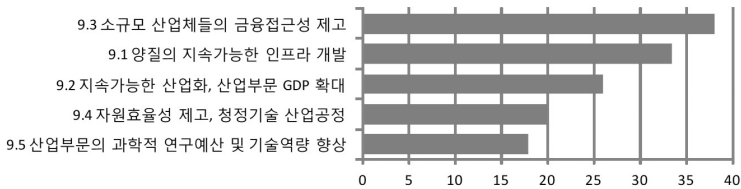
기업 단위에서는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그림 5-3〉~〈그림 5-5〉 참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한편 국가 차원의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소규모 산업체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된 세부 목표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편차가 크지 않아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림 5-1〉 응답 기업들이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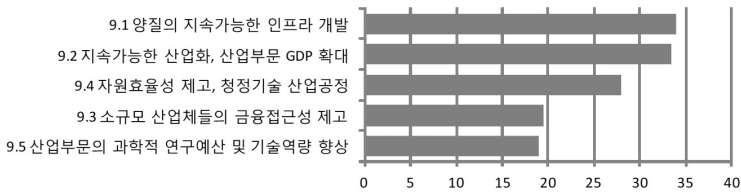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 응답 기업들이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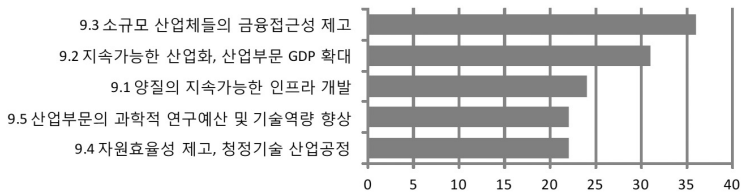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3〉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 가장 잘 준비된 목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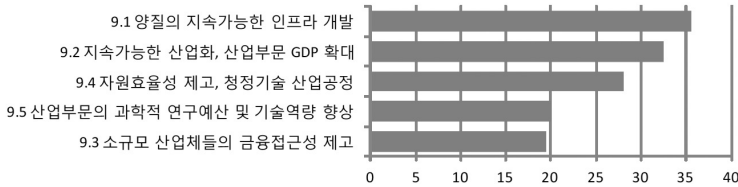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4〉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기 어려운 목표 순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5〉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이행에 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목표 순위



자료: 저자 작성.

(2) 측정지표 분석

SDG 9의 측정지표들을 우리의 상황에 부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SDG 9와 관련된 지표의 측정 가능성과 타당성을 살펴봄으로써 지표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SDG 9는 인프라, 산업화, 혁신의 세 개 분야에 해당하는 8개 세부 목표에 대하여 각각 1개 또는 2개의 지표를 선정, 총 12개의 지표를 포함한다. 지표 선정에는 UN 산하 기구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와 정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수 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핵심 지표를 선별하였다. 이 지표들은 새로운 지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동안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경제협력체에서 활용해오던 지표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지표들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 지표 측정이 용이한 수준에서 지표를 선택한 결과로 이해된다.

인프라 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요 지표로는 도로접근성 및 교통수단별 승객 수와 수하물 중량이 포함되었다. 이 지표들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발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유효하다. 예를 들어,

〈표 5-2〉 SDG 9번 세부 목표별 측정지표

세부 목표	측정 지표
9.1	9.1.1 모든 계절에 접근 가능한 도로 2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촌인구 비율 9.1.2 교통 수단에 따른 승객 수와 수하물 중량
9.2	9.2.1 GDP, 1인당 GDP 대비 제조업부가가치 비율 9.2.2 전체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의 비율
9.3	9.3.1 전체 산업 부가가치 대비 소규모 기업 비중 9.3.2 용자 보유 소규모 기업 비중
9.4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9.5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비용 비중 9.5.2 거주자 백만 명당 연구자(풀타임) 비중
9.a	9.a.1 인프라에 대한 공적자금(ODA와 기타 재정지원)
9.b	9.b.1 전체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 기술 산업 비중
9.c	9.c.1 기술별 이동통신 접근 가능 인구 비중

자료 :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

2014년 기준, 항공승객의 55%는 선진국, 45%는 개도국으로 구성되며 이중 내륙국(0.8%), 도서국(1.4%)의 항공승객 수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UN ECOSOC, 2016). 항공 수하물 비중 또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내륙국과 도서국의 인프라 부문이 더욱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부문의 GDP 구성 비율, 전체 고용 대비 제조업 비율은 한 국가의 산업화 정도를 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은 13%(2015년 기준)로서 서비스업 부문 확대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개도국의 제조업 부문 비중은 2005년 19%에서 2015년 21%로 크게 확대되어 선진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UN ECOSOC, 2016).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 역시 주목해야 한다. 그간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제조업 확대가 크

게 기여하였다. 2014년 기준 동아시아의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비중은 23%로 나타난 반면, 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 11%, 저소득국 평균은 8%이다.⁵⁴⁾

제조업 부문 외에도 중소기업의 비중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역시 산업화의 주요 지표로 선정되었다. 개도국 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15%에서 2015년 25%로 증가되었으며, 고용 측면에서는 30% 이상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UN ECOSOC, 2016). 그러나 이들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높지 않다. 신흥국 중소기업의 45~55%가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UN ECOSOC, 2016).

SDG 9의 세부 목표 중 하나인 자원효율성 추구하고 친환경적인 기술 산업 발전(9.5)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선정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1990~2011년간 0.8kg에서 0.4kg으로 크게 감소하였다.⁵⁵⁾

혁신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이는 각국의 R&D 분야에 대한 투자비용, 연구자 수의 차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연구개발 비용 비중은 1.7%이며, 선진국의 경우 2.4%인 반면, 개도국의 해당 비중은 1.2%, 최빈국의 경우는 0.3%로 나타났다(ECOSOC, 2016). 인구 백만 명당 연구자 비중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선진국의 인구 백만 명당 연구자 수는 3,641명인 반면, 개도국은 65명으로 조사되었다(UN ECOSOC, 2016).

54) wdi.worldbank.org(접속일 : 2016.7.11).

55) *ibid.*

끝으로, SDG 9의 달성을 위한 개도국 지원 이행 관련 목표로서 인프라에 대한 공적자금, 전체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 기술 산업 비중, 기술별 이동통신 접근 가능 인구 비중 등이 선정되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인프라 부문 공적원조자금의 양적인 수준 파악과 분야별 지원액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이동통신 접근성 확대, 특히 지역(도시-농촌) 간의 격차 해소, 중소기업 지원 등도 함께 요구된다.

〈표 5-3〉 Tier 2와 3 해당 SDG 9번 측정지표 관련 논의 사항

측정지표	Tier 구분 사유 및 향후 논의 내용
9.1.1 농촌 도로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도로 접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세계은행이 농촌접근지수(Rural Access Index)를 활용하여 측정을 시도하고 있음. 이는 양호한 도로 2km 인근에 살고 있는 농촌인구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8개국을 대상으로 GIS 기술을 활용하여 시도된 바 있음. 관련 방법론은 향후 30개국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임
9.3.1 산업 내 소기업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산업 부가가치 대비 소규모 기업 부가가치 비율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시험 적용 또한 마친 상태임 - Tier 3으로 분류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규모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소기업의 규모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 본 지표의 담당 기관으로 지목된 UNIDO/UNCDF는 10명 이하 기업을 소규모 기업 적정 수준으로 고려 중임
9.3.2 용자보유 소기업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보유 중소기업 지표는 G20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PII)의 주요 성과지표로 선정된 바 있으며 방법론과 기준이 어느 정도는 합의된 지표임 - 9.3.1 지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소규모 기업의 규모 수준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Tier 3으로 분류됨
9.b.1 중고급 기술 산업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론은 정의되어 있으나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 - OECD에서 제공하는 중고급기술 산업 부가가치액을 활용하여 계상이 가능하지만 OECD 국가 내로 범위가 한정됨에 따라서 정보 취득이 용이하지 않음

자료 : UN Statistical Commission(2016)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지표의 Tier 체계에 따르면, SDG 9의 경우 3개의 지표가 Tier 3에, 1개의 지표가 Tier 2에 속하였고 나머지 8개는 모두 Tier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 5-4〉 SDG 9의 Tier 1 지표별 관리기구와 조사 현황 및 고려사항

지표	담당기구 (관련기구)	조사 현황 및 고려 사항
9.1.2 승객 수와 수하물 중량	ICAO (UPU, UNEP)	- ICAO는 191개 국가의 항공 승객 수와 수하물중량을 측정하여 매년 보고하고 있음 - UPU는 육로 및 선편 우편 수하물까지 포함한 수하물 측정 방법을 개발 중임 - UNEP은 승객 수 및 수하물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방출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저품질의 연료 사용이 보다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음
9.2.1 제조업부가 가치 비율	UNIDO (WB)	- stat.unido.org를 통해 대부분 국가의 연간 정보가 확인 가능함
9.2.2 제조업 고용 비율	UNIDO	- WB에서 시행하는 139개국 12만 5,000개 기업 대상의 기업 조사를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함(enterprisesurveys.org)
9.4.1 CO ₂ /GDP	UNIDO IEA UNFCCC (UNEP)	- UNFCCC 이행사항의 하나로 각 국가들은 2006 IPCC 온실가스인벤토리 가이드라인 및 UN 국제에너지통계권고 사항(IRES)의 방법론에 따라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음 - IEA는 IPCC의 방법론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CO ₂ /GDP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9.5.1 연구 개발비 비중	UNESCO-UIS	- GDP 대비 연구 개발 비용 지표는 OECD Frascati 매뉴얼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UNESCO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지표임(www.uis.unesco.org/DataCentre/Pages/BrowseScience.aspx)
9.5.2 연구자 비중	UNESCO-UIS	- 위와 내용 동일함
9.a.1 인프라 ODA	OECD	- OECD DAC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함
9.c.1 이동통신 접근 가능 인구 비중	ITU	- ITU는 매년 144개국의 2G 이동통신 가입 인구 및 135개국의 3G 이동통신 가입인구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publications/wtid.aspx)

자료 : UN Statistical Commission(2016)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함.

로 조사되었다. Tier 3으로 분류된 지표인 9.1.1 농촌 도로 접근성, 9.3.1 산업 대비 중소기업 비중, 9.3.2 융자 보유 중소기업 비중과 Tier 2로 분류된 9.b.1 중고급 기술산업 비중 지표에 대해서 IAEG-SDGs는 〈표 5-3〉과 같이 분류 사유 및 향후 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Tier 1에 해당하는 SDG 9의 8개 지표는 측정 방법론과 국제적인 기준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 이들 지표를 측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사 현황 및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시에 국내 이행 지표 마련 시에 이 지표들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ier 1 지표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현황과 향후 측정 시의 고려사항, 담당 기구는 〈표 5-4〉와 같다.

IAEG-SDGs는 주기적으로 지표별 측정 방법론을 검토하고 새로운 데이터 출처와 지표 취합 방법 등을 연구하여 제공하고, UN 통계 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발된 데이터 접근 방법과 방법론 등을 승인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지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3. 국내외 규범 및 가이드라인 분석

본 절에서는 인프라 및 산업화를 둘러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주요 합의와 규범, 가이드라인을 분석함으로써 SDG 9의 달성에 있어 주요 고려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SDGs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취합한 목표이다. 따라서 SDGs 수립 이전의 국제사회 논의 결과들을 이해하여 이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SDGs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설정한 주

요 관련 목표와 정책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SDGs와 국내 정책, 목표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국외 규범 및 가이드라인

지속가능한 인프라·산업 목표 이행과 관련된 주요 국제 이해관계자 그룹으로는 국제기구와 다자은행, 국가 간의 파트너십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기관들이 제시해 온 인프라, 산업화, 혁신 관련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 UN 책임투자원칙

지속가능한 인프라, 산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 중 하나로 UN 주도하에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수립한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이 있다. PRI는 인프라 및 산업 분야의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적용해야 할 6개 항목⁵⁶⁾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결정 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고려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PRI는 책임투자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므로 UN의 지원하에 수립되었으나 UN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총 50개 국가의 1,500개의 투자기관이 이 원칙에 서약하였다.⁵⁷⁾

56) (i)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 (ii) 능동적인 주주로서 ESG 이슈를 주주권 행사에 활용 (iii) 투자 대상의 ESG 정보 공개 요구 (iv) 금융 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 (v) PRI를 이행하도록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협력 (vi) PRI 이행을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과 진행을 상호 보고(www.unpri.org, 접속일 : 2016.8.11).

57) www.unpri.org(접속일 : 2016.8.11).

□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다자개발은행 등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은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 인류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잠재적인 요인을 확인하여 최소화하고, 이를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라는 장치를 마련하였다(임소영 외, 2015). 이는 인프라, 산업화 프로젝트 시행과 SDG 9의 국내 이행 시 연계하여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기준들이다. 국제기구들은 1980년대부터 자체의 개발사업에 적용할 환경 및 사회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 세계은행이 최초로 ‘세이프가드’를 체계화하였다(임소영 외, 2015).

각 기구가 자체적인 세이프가드를 보유하고지만, 대부분 세계은행이 체계화한 세이프가드를 참고하여 준용하였다. 세이프가드 운용 초기에는

〈표 5-5〉 국제기구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의 대표 사례

기관	가이드라인	기준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IFC)	지속가능성 정책 내 8대 성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사회적 위험 및 영향의 평가·관리 - 노동 및 근무환경 - 자원 효율성 및 오염 방지 - 지역사회 보건, 안전 및 안보 -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살아있는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토착민 - 문화적 유산
지구환경금융 (GEF)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 최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기준 1: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 - 최소기준 2: 자연서식지 보호 - 최소기준 3: 비자발적 이주 - 최소기준 4: 토착민 - 최소기준 5: 병해충 관리 - 최소기준 6: 유형문화재 - 최소기준 7: 댐 안정성 - 최소기준 8: 책무성 및 고충처리 시스템

자료: 임소영 외(20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환경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점차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환경과 사회를 고루 고려하고 있다(임소영 외, 2015). 최근에는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의 세이프가드를 가장 대표적으로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

□ 글로벌인프라기구(GIF)와 사업수행가이드라인

글로벌인프라기구(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이하 GIF)는 인프라와 관련된 민관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민간부문과 금융기관의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2015년 세계은행 주도로 설립되었다. GIF는 개도국의 늘어나는 인프라 개발 수요에 주목하여 인프라 부문 투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다자은행, 민간, 금융,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

〈표 5-6〉 GIF 사업수행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투자 가능 분야	에너지, 식수와 위생, 교통, 통신
핵심 분야	1. 기후친화 사업 : 탄소배출 감량, 에너지 효율 제고, 기후회복력 강화 관련 사업 2. 무역 증진 : 국가 간 무역 증진(철도, 항만, 항공, 도로 등)에 기여하는 사업
프로젝트 선정 기준	1. 개발영향 : 빈곤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2. 국가 우선순위 : 국가 우선순위에 부합하며 적절한 재정 동원이 가능한 사업 3.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 금전적 가치 :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금융, 재정상 가능하며, 수혜국에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4. 민간자금 운용 : 민간부문으로부터 자금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5. 복합성 : 다양한 기관의 참여와 상호적인 협력이 용이하고 참여주체들 간의 리스크 분담이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성 목표	1. 분야 : 투자가능 분야 중 한 분야에 최대 35%까지 지원 2. 지역 : 한 지역에 최대 25%까지 지원 3. 소득수준 : 중저소득국에 최소 50% 이상, 저소득국에 최소 20% 이상 지원

자료 : 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2016).

계자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2016). GIF 참여 기관은 크게 기관투자자, 상업은행, 개발금융기관, 금융협의체로 구성된다. GIF는 인프라 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으로서 사업수행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2016).

□ G20 글로벌인프라이니셔티브

2014년 G20는 생산성 향상과 성장에 관한 국가들 간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년도 프로그램으로서 글로벌인프라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양질의 인프라 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참여 국가의 개발계획 및 브리즈번 행동계획⁵⁸⁾에 부합하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식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하여 글로벌인프라허브(Global Infrastructure Hub, 이하 GI Hub)라는 네트워크 수립에 동의하였다.⁵⁹⁾

GI Hub의 파트너 국가 및 국제기구로는 호주, 중국, 멕시코, 뉴질랜드, 대한민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OECD, 세계은행 등이 있다. GI Hub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가능성을 높이며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GI Hub는 프로젝트 준비와 이행과 관련한 민관협력사업 리스크 배분 가이드라인⁶⁰⁾(GIH, 2016)을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7개 섹터(도로,

58) 2014년 G20 회의의 합의사항으로 연평균 2.1% 경제성장을 달성 추진,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2015년 파리회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합의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9) www.globalinfrastructurehub.org(접속일 : 2016.8.25).

60) Allocating Risk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acts(Global Infrastructure Hub, 2016).

철도, 항공, 식수, 통신,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주요 리스크와 대응방안,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리스크 배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UNIDO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개발(ISID)

산업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인 UN공업개발기구

〈표 5-7〉 UNIDO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ISID) 목표와 프로그램

목 표	
1. 모든 국가가 높은 수준의 산업화 달성 2. 산업 발전으로부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을 것 3. 환경적 지속가능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광범위한 경제, 사회발전 지원 4. 지식, 기술 혁신 공유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지향 5.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통해 상기 목표를 지원	
프로그래밍	
사회적 포용	- 식품가공 등 농공산업 강화 - 글로벌가치사슬과 공급자 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비용 효율성 증가, 시장 참여 기회 확대 - 청년 및 기업가 프로그램: 청년 고용 증진을 우선순위로 삼고,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 프로그램 지원 - 클러스터 조성, 수출 협력, 비즈니스 간 연계: 중소기업 간의 수출 연맹, 기업 간의 자발적 연대 지원 -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 강화: 여성 기업가 및 생산자 지원, 기술 훈련, 정보 공유
경제적 경쟁력 제고	- 투자와 기술 촉진: 기술, 정보 및 모범사례 공유, 기술협력,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개도국의 기술접근성 향상 및 투자 확대 - 경쟁력 향상 및 현대화: 지역 생산 능력 개발, 책임투자 확대, 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 양질의 인프라 지원: 개도국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인프라 관련 정책 결정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 재생에너지 및 농촌 전력화: 산업 분야의 환경적 책무 수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강화 - 에너지 효율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지원 - 청정자원 활용 및 생산: 청정생산 공정 도입, 자원 효율적 생산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지원

자료: UNIDO(2015)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이하 UNIDO)는 2013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개발(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이하 ISID) 목표를 자체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SID는 포용적 성장, 경제적 경쟁력 강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세 축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UNIDO, 2015). UNIDO의 전 사업은 산업화, 포용성, 환경지속가능성, 혁신, 파트너십이라는 ISID의 방향과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ISID가 추구하는 방향은 SDG 9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해당 목표 수립에 있어서 UNIDO의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UNIDO, 2015).

□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2015년 7월, 제3차 개발재원총회⁶¹⁾에서는 Post-2015 개발의제 채택을 앞둔 시점에서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으로서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이하 AAAA)을 채택하였다. 동의제의 7대 행동 분야⁶²⁾에는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의미 있는 합의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먼저, AAAA 14조는 국가 간의 인프라 간극을 줄이기 위한 범지구적 포럼을 구성하여 교통, 에너지, 식수, 위생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회복력을 높이고 이를 다른 목표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로 삼는 데에 동의

61)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62) 국내공공재원, 민간재원, 국제개발협력, 국제무역, 책무, 구조적 문제 해결, 과학기술·혁신 및 역량 강화.

〈표 5-8〉 SDG 9 관련 국제사회의 합의와 규범, 가이드라인

SDG 9 목표 및 지표		국제 규범과 가이드라인, 이니셔티브	
		주체	명칭
인프라	9.1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GIF	Operating Guidelines
		G20	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
		UN	AAAA : Global Infrastructure Forum
산업화	9.2 GDP 내 산업부분의 비중 확대	UNIDO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참여 확대	G20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9.4 자원효율성, 청정기술·산업 공정	WB, GEF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9.5 과학적 연구 및 기술적 역량 향상	UNDP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UN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혁신	9.5 과학적 연구 및 기술적 역량 향상	UN	AAAA :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UNICEF	Principles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Development
이행목표	9.a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촉진 9.b 개도국 연구 및 혁신 지원 9.c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자료 : 전술한 본문 내용 정리함.

하였다. 최근 설립된 인프라 이니셔티브들⁶³⁾의 도입을 환영하는 동시에 다자은행, 국가 개발은행, UN, 민간 부문 등의 다양한 인프라 관련 이니셔티브의 조정과 통합을 수행할 범지구적 포럼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AAAA 15조는 개도국 산업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산업 발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UNIDO의 ISID 등 UN의 인프라 개발, 산업화 및 혁신을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AAAA는 혁신과 기술 개발, 노하우 축적, 정보의 이전 등이 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UN General Assembly, 2015b). 과학기술,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촉진메커니즘⁶⁴⁾ 출범에 합의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해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수 이해관계자 간의 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을 열기로 결의하였다(UN General Assembly, 2015b).

(2) 국내 정책

국내의 다양한 정책들은 산업화, 인프라, 혁신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과 목표를 제시해 왔다. 국내 산업 관련 정책 목표와 SDGs 간의 조

(63) 아태지역 프로젝트 준비기구(Asia Pacific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글로벌인프라기구(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프리카 50 인프라기금(Africa 50 Infrastructure Fund) 등.

(64)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화는 국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인프라 건설, 혁신 추구의 기본 요건이다. 이에 SDG 9와 관련된 국내 주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SDG 9의 국내 이행을 위한 여건과 환경을 확인하고자 한다.

□ 지역산업발전계획(2014~2018)

국내 시도 지자체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지역 경제위원회가 의결하여 확정하는 지역산업발전계획은 5년간 각 지역의 핵심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 동 계획을 통해 지역 대표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액 증가를 목표로 각 지역별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대비 2018년 14개 시도 대표산업의 종사자 수 연 평균 3.0% 증가, 동 기간 생산액 연 평균 6.6%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⁶⁵⁾ 동 계획은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일자리 창출 부문에 반영되었다.

동 계획은 그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대부분 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며 따라 심화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이에 각 시도별로 집적도, 특화, 성장성을 고려하여 주력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시·도 간 연계를 위한 협력산업, 지역별 연고(전통)산업을 함께 선정하여 발표하였다.⁶⁶⁾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지식서비스, 융복합 산업으로 주력산업 분야를 확대했다는 점과 고용과 매출 모두를 성과 관리 지표로 선정하는 점 등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⁶⁷⁾

(6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9.29).

(66) *ibid.*

(67) *ibid.*

□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

산업통상자원부는 노동·자본 집약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신산업 분야의 출현 지체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성장 엔진으로서의 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선진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R&D 혁신주체역량 강화,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8대 핵심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목표별로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

〈표 5-9〉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 목표, 전략

비전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선진 산업 강국 도약	
목표	R&D혁신주체의 역량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수출 1억 달러, 글로벌 전문기업('12) 217개 →('18) 400개
		대학·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 비중('11) 2.7% →('18) 5.0%
		연구원 1만명당 특허 세계순위('11) 12위 →('18) 5위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제고 함으로써 주력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선진국 대비 산업기술수준('13) 79.2% →('18) 90.4%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13) 9.2% →('18) 11.6% 하이테크산업 수출액 비중('11) 25.2% →('18) 35.0%
8대 핵심 추진 전략	1. [기획재]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엔진 창출	1-1. 선도·융합형 전략 기술개발 1-2. 창의·도전형 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체계 혁신
	2. [연계재] R&BD 중심의 신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2-1. 역동적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2-2. 전략시장 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3. [조성재] 선도자형 산업 기술혁신기반 조성	3-1. 신산업·신기술을 견인하는 기술혁신인프라 구축 3-2. 지역의 특화발전을 유도하는 지역혁신체제 고도화
	4. [촉진재] 산업기술혁신 인재 및 기술문화 확충	4-1. 기업 공감형 기술인재 육성·활용의 선순환 촉진 4-2.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기술문화 조성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

며 SDG 9 혁신분야의 지표와 연계 가능성이 높다.

□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국토 공간 조성 필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정비의 시급한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국토개발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이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국토 통합, 친환경국토 형성,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연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거점 확충 등 SDG 9와 관련성이 높은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확보, 글로벌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공항, 항만, 광역철도망 등 교통인프라 확충 등이 제시되었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 개발권 연계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표 5-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주요 성과지표

주요 지표	2009년	2020년
도시화율	90.8%	95.0%
수도권 인구 비중	49.0%	47.5%
1인당 도시공원 면적	7.4m ²	12.5m ²
매출액 대비 기업 물류비	9.1% (2008년)	5.5%
1인당 주거면적	22.8m ² (2005년)	30.0m ²
상수도 보급률	92.7%	97.5%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1).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2014~2018)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3차 계획(2014~2018년)은 기술혁신 수준별 개별 기업 역량강화와 개방적·효율적인 기술혁신 지원체계 마련을 두 가지 주요 목표로 두고 중소기업 R&D의 질적 내실화,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기술기반 금융공급 확대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중소기업 기술 수준 향상, 신기술 투자비율 확대, 중소기업 R&D 인력 향상 등을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있어 SDG 9의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참여 확대와의 관련성이 높다.

이상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산업·인프라·혁신 분야의 주요 전략 문서를 종합하여 SDG 9와 관련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5-11>과 같다. 이들은 SDG 9 지표와 비교하여 완전히 동일한 경우도 있으며, 약간은 상이하나 각 세부 목표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표 5-11〉 SDG 9 관련 국내의 주요 정책 및 지표

SDG 9의 목표 및 지표		국내 주요 정책	
		기관명	정책명
인프라	9.1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국토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9.2 GDP 내 산업부문의 비중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발전계획 (2014~2018)
산업화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참여 확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2014~2018)
	9.4 자원효율성, 청정기술·산업 공정	환경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4~2018)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녹색성장위원회	우리나라 INDC(국가 기여) 문서

〈계속〉

국내 주요 정책

관련 성과 지표

- 도시화율 : (09) 90.8% → (20) 95.0%
 - 상수도 보급률 : (09) 92.7% → (20) 97.5%

- 대표산업 일자리 창출 : '12년 대비 '18년 종사자 수 연평균 3.0% 증가
 - 대표산업 총생산액 : '12년 대비 '18년 생산액 연평균 6.6% 증가

- 기술수준(%) : (12) 77.4 → (18) 90.0
 - 신기술(GT) 분야 투자비율(%) : (12) 35.5 → (18) 50
 - 중소기업 R&D 인력(만명) : (12) 15.6 → (18) 20

- 온실가스 BAU 대비 감축률(%) [온실가스 총배출량(백만CO₂e)] 0 [669]('10) → 19.1 [604]('18)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3.4('12) → 45.8('18)

- 2020년 배출전망치 7억 7,610만톤CO₂-eq 대비 30% 감축 목표인 5억 4,300만톤CO₂-eq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억 5,060만톤CO₂-eq) 대비 37% 감축 목표 공표(2015.6.30)

SDG 9의 목표 및 지표		국내 주요 정책		
		기관명	정책명	관련 성과 지표
혁신	9.5 과학적 연구 및 기술적 역량 향상	9.5.1 연구 개발비 비중 9.5.2 연구자 비중	산업통상 자원부 제6차 산업기술혁 신계획(2014-2018)	- 대학·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 비중 : (11) 2.7% →('18) 5.0% - 선진국 대비 산업기술수준 : (13) 79.2% →('18) 90.4% -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 (13) 9.2% →('18) 11.6% - 하이테크산업 수출액 비중 : (11) 25.2% →('18) 35.0%
	9.a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촉진 9.b 개도국 연구 및 혁신 지원 9.c 최빈국의 정보 통신기술 접근성	9.a.1 인프라 ODA 9.b.1 중고급 기술 산업 비중 9.c.1 이동통신 접근 가능 인 구 비중	제2차 국제개발협 력 기본계획(2016- 2020)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 1차 기본계획 기간 평균인 경제인프라 부문 지원 비 중은 약 27.4%, 생산(산업) 부문 지원은 9.1%에서 상 향 지원

자료 : 진술한 본문 내용 정리함.

4. 국내 여건 분석 및 기초선 조사

SDGs의 인프라·산업 발전 관련 12개 지표들을 국내 이행과 연계하여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을 요한다. 본 절에서는 SDG 9의 12개 지표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산출 가능성을 알아보고 지표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지표를 취득할 수 있는 자료의 출처를 살펴보고, 각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적용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대체 또는 보완 지표가 필요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

SDG 9를 반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는 국민계정, 광업·제조업조사, 중소기업통계, 과학기술통계 등의 다양한 통계원으로부터 추출이 가능하다. 이들이 제공하는 지표들은 SDGs 지표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 발전 정도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 적용 가능성이 높다.

경제지표와 관련하여 세계은행, OECD 등의 국제기구 역시 우리나라의 국내이행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이들은 국내의 원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국내 자료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국제기구 및 M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개도국, 선진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비교조사가 수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자료의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같은 국내 데이터라도 통계 자료의 출처에 따라서 정보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국민계정(한국은행)과 광공업·에너지 통계(통계청)가 서로 다르다. 이는 국민계정의 제조업 부가가치액은 생산액에서 직접, 간접비

를 직접 차감하여 계산하지만 광업·제조업 조사 시에는 생산액에서 직접생산비만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지는 생산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간접추계방식을 활용하지만, 후자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차이도 있다.

경제, 산업부문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국내의 주요 지표 체계로는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표 5-12〉 SDG 9 관련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

SDG 9의 지표		주요지표 체계별 관련 지표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인프라	9.1.1 농촌 도로 접근성	-	-	대중교통 분담률
	9.1.2 승객 수와 수하물 중량	-	항공여객 항공수송량	
산업화	9.2.1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산업구성 산업 집중도	-	-
	9.2.2 제조업 고용 비율	취업자 산업구성	-	-
	9.3.1 산업 내 소기업 비중	-	-	-
	9.3.2 융자보유 소기업 비중	-	중소기업 금융 지원 현황	-
	9.4.1 CO ₂ /1인당GDP	-	-	자원생산성, 재활용률, 환경경영 보급사업 실시 사업장 수, 에너지 절감량, 에너지원단위,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 및 비중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주요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
혁신	9.5.1 연구 개발비 비중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총 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및 투자비율
	9.5.2 연구자 비중	-	총 연구개발 인력	-

자료 : 국가지표체계 포털.

주 :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이행과제별 성과지표.

이 있다. 이들은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지표체계 포털⁶⁸⁾을 통해서 한번에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각각의 지표체계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지표들 중 인프라, 산업화, 혁신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지표들은 <표 5-12>와 같다.

UN이 Tier 1 해당 지표들을 대상으로 지표별 기초선 조사를 수행하여 보고한 SDGs 이행보고서와 우리나라의 개별 지표를 취합하여 <표 5-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13>을 통해 각 지표별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SDG 9 관련 기초선을 비교할 수 있으며, 향후 SDG 9의 국내 이행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7월, SDGs의 자발적 이행 평가에 참여하여 SDGs 230개 지표를 모두 반영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 필수적인 지표들을 국가 지표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SDGs 관련 국내외의 자료들과 국가 지표 체계 등을 참고하여 향후 SDG 9 지표 선정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각 지표별 통계치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표 5-14>는 SDG 9의 측정지표와 가장 유사한 지표를 우선 선정하여 기초선을 살펴본 것이다. 국내 통계 출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국내에 유사한 지표가 없는 경우 또는 국외 출처의 자료가 더 부합하는 경우는 국외 자료로 대체하여 종합하였다.

SDG 9의 지표에 해당하는 측정치를 국내에서 모두 취득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2km 이내 도로접근이 가능한 농촌인구 비율’ 지표의 경우, 국내 현행 통계를 통해 측정할 수 없다. ‘제조업 내 소기업 비중

(68) 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표 5-13〉 SDG 9의 Tier 1 해당 측정지표별 기초선 조사 비교표

지표(단위)	출처	구분	2000	2005	2010	2014
9.1.2 승객 수 (백만)	ICAO	전 세계	1,672.3	2,027.4	2,642.0	3,271.1
		개도국	397.4	572	1,009.3	1,456.1
		선진국	1,274.8	1,455.5	1,632.7	1,815.0
		한국	34.3	33.8	36.9	59.1
9.1.2 수하물 (천톤)	ICAO	전 세계	42,695.3	56,185.4	45,302.7	48,427.3
		개도국	13,232.3	18,221.1	22,352.1	24,063.0
		선진국	29,462.9	38,063.2	22,950.7	24,264.4
		한국	2,106.8	2,455.6	3,101.1	2,311.9
9.2.1 제조업부가가치 비율(%)	UNIDO	전 세계	-	15.3	15.8	16.1
		개도국	-	18.6	20.0	20.6
		선진국	-	13.9	13.6	13.4
		한국	22.7	24.8	27.8	28.8
9.2.2 제조업 고용 비율 (%)	UNIDO	전 세계	12.0	11.9	11.3	11.1
		개도국	11.2	11.9	11.5	11.2
		선진국	15.1	12.8	11.3	11.4
		한국	20.3	18.5	16.9	-
9.4.1 CO ₂ /GDP (kgCO ₂ e/ 1인당 GDP)	UNIDO	전 세계	0.38	0.37	0.34	0.33
		개도국	0.36	0.37	0.34	0.34
		선진국	0.47	0.34	0.31	0.29
		한국	0.58	0.33	0.25	-
9.5.1 연구 개발비 비중 (%)	UNESCO	전 세계	1.53	1.54	1.63	1.70
		개도국	0.63	0.79	1.01	1.16
		선진국	2.16	2.15	2.29	2.36
		한국	2.18	2.63	3.47	4.29
9.5.2 연구자 비중 (백만 명당)	UNESCO	전 세계	803.5	907.0	1,022.8	1,083.3
		개도국	260.6	350.8	476.2	536.4
		선진국	3,032.3	3,314.3	3,502.1	3,641.1
		한국	2,340	3,777	5,380	6,899
9.a.1 인프라 ODA (%)	OECD	전 세계	25.00	18.10	52.76	59.54
		한국	-	-	-	-

자료 : UN ECOSOC(2016).

주 : 우리나라 정보는 SDGs 데이터베이스(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5-14〉 SDG 9의 측정지표별 국내 기초선 조사

SDG 9의 측정지표		통계	원자료 출처	'00	'05	'10	'14
9.1.1 농촌 도로 접근성	도로 2km 이내 농촌 인구 비율	-	-	-	-	-	-
9.1.2 승객 수와 수하물 중량	항공승객 수(천명)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22,515	17,158	40,461	24,648
	항공수송량(천톤)			434	372	262	283
9.2.1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GDP 내 제조업 비중(%)	국가통계포털	한국은행, 국민계정	29.0	28.3	30.7	30.3
9.2.2 제조업 고용 비율	제조업 고용자 비율 (%)	국가주요지표	경제활동인구조사	20.4	18.1	17	17
9.3.1 산업 내 소기업 비중		-	-	-	-	-	-
9.3.2 융자보유 소기업 비중		-	-	-	-	-	-
9.4.1 CO ₂ /1인당 GDP	GDP당 배출량(톤CO ₂ eq/인)	국가통계포털	환경부, 온실가스배출통계	718.1	642.8	625.7	612.0
9.5.1 연구 개발비 비중	GDP 대비 총연구개발 비용 지출(%)	e-나라지표	미래부, 연구개발활동조사	2.18	2.63	3.47	4.29
9.5.2 연구자 비중	노동인구 1,000명당 연구자 수	e-나라지표	미래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	345,912	437,447
9.a.1 인프라 ODA	ODA 경제인프라 분야 비중 (%)*	Country Reporting System	OECD	-	28.3 ('06)	28.9	26.4

자료: 여러 출처의 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작성

주: * OECD CRS 섹터분류에 따라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200) 부문 ODA 비중을 계산함(stats.oecd.org, 접속일: 2016.7.11).

과 금융서비스 보유 소기업 규모' 역시 기존의 통계로는 취득이 어려운 지표들이다.

지표 측정상의 어려움 외에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점검하기 위해 각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산업화와 관련한 대부분의 지표들은 국제 비교 시 이미 상당히 앞선 상황에 놓여 있다. GDP 내 제조업 비중, 제조업 고용자 비율, R&D 연구자 수 비율 등은 국제 사회 및 선진국 평균보다도 앞서 있어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인 비교 필요성이 낮다.

또한, 이들 자료를 국내 경제발전 지표로 활용하여 경제 및 산업 발전의 척도로 삼기에는 국내 산업구조가 다소 복잡하다. 가령, 2030년까지 고용 및 GDP 내 산업부문의 비중을 확대할 목적으로 포함된 제조업 부가가치 확대의 경우, 우리나라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제조업 비중이 30% 이상으로 국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제조업의 비중 확대보다는 혁신과 연계한 산업고도화, 산업 구조 조정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 비중 확대 지표만으로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제6장

종합 결론 및 제언

2015년 이후 새로운 개발목표인 SDGs는 개도국의 빈곤 해소를 위한 목표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지향해야 할 기준을 제공한다. 광범위한 목표들이 포함된 만큼 이전 개발목표 시대보다 SDGs의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이해관계자를 필요로 한다. 이 때 민간부문 특히 기업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들의 참여가 SDGs 달성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OECD,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SDGs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높지 않다. 전체 응답자의 약 90%가 SDGs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답한 글로벌 기업 대상 해외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약 절반이 SDGs를 들어보지도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해외 조사보다 약 1년 후에 실시되었음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SDGs에 대한 인식 차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6-1〉 SDG 8의 세부 목표별 개념과 국내 기업의 인식조사 결과

세부 목표	주요 개념	목표 배경 ⁹⁾	기업 인식조사			
			국가 경쟁력	국가 미흡	회사 경쟁력	회사 미흡
8.1	경제성장, GDP 성장률	1961년 UN 총회 이후 10년마다 GDP 성장률 목표 설정. 1990년대부터 개도국 GDP 성장률을 7% 설정. 1981년 UNCTAD는 개발국의 GDP 성장률 7% 목표 설정	○			
8.2	산업다각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	UNCTAD의 주도하에 개최된 최빈국회의에서 경제 재황성과 조직로서 논의된 산업, 서비스, 과학 및 기술기반 발전,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혁신 등 반영	●		●	
8.3	양질의 고용창출, 기업가 정신, 영세 중소기업 육성	ILO는 2002년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 프로그램과 2009년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프로그램 발족	●		○	
8.4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992년 UNCTAD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이 대두된 이후 2012년 UNCTAD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2012-2022년) 채택				
8.5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1998년 ILO는 '노동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전 지구적 경제사회발전에서 고용과 직업교육, 노동환경 강조		○		
8.6	청년실업 감소	2005년 ILO가 채택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ILO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청년고용, 불안정한 고용, 실업에 관한 보고서 발간			●	
8.7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간착취 근절	ILO는 1957년 강제노동 철폐협약을,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9년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협약을 채택. 2012년 UN은 2020년까지 아동노동 철폐 선언				
8.8	이주노동자, 고용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ILO는 1939년 이주노동자 협약을, 1951년 동등한 보상협약을, 1952년 모성보호 협약을, 1981년 안전보건협약을 채택			○	
8.9	현지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관광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UN세계관광기구(UNWTO)와 지역사회 관광지의 문화·환경적 통합에 대해 논의				●
8.10	국내 금융기관 역량 강화	2002년 개발재원회의의 몬테레이합의는 자국 금융기관의 역량강화 필요성 논의.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강조				○

자료: 저자 작성.

주: ● 최상, ○ 상, ○ 중상

9) www.unglobalcompact.kr

〈표 6-2〉 SDG 9의 세부 목표별 개념과 국내 기업의 인식조사 결과

세부 목표	주요 개념	목표 배경 ⁷⁰⁾	기업 인식조사			
			국가 경쟁력	국가 미흡	회사 경쟁력	회사 미흡
9.1	공평하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	1966년 개도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UNIDO를 발족하고 1971년부터 4년마다 정기 총회 개최, 2013년 MDGs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ISID)' 채택	●	●	●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산업부문 GDP	UNIDO는 OECD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산업통계 조사 및 보고를 의무화. 각 산업의 GDP 비중과 일자리 비율을 측정하는 지수(CIP) 전달	●		●	●
9.3	소규모 산업체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가치사슬 통합	UN은 2005년을 '국제 소액금융의 해'로 채택. 세계은행은 2013년 보고서를 통해 거래 가능한 개인 및 기업들에 신용 접근을 보장하는 포용적 금융 강조		●		●
9.4	청정 기술·산업공정	세계은행은 1989년 '청정생산'이라는 용어를 도입, 특히 에너지효율 제고의 중요성 강조. UNIDO는 ISID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산업개발을 위한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의 중요성 강조				
9.5	혁신, 연구개발	1999년 UNESCO의 세계과학회의에서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국가 과학정책을 통한 과학연구와 과학연구 자금 지원의 중요성 강조				

자료: 저자 작성.

주: ● 최상, ● 상, ○ 중상

70) www.unglobalcompact.kr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해외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기업들이 경제 관련 SDG에 대해 국가 및 회사 차원 모두에서 월등하게 높은 중요도를 매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고용과 청년 실업에 관해 국가적으로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기초선 조사 결과로도 증명되었다. 한편, 산업화, 인프라, 혁신 관련 세부 목표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회사 차원에서 경쟁력이나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 편차가 크지 않다.

SDG 8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SDGs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행전략의 수립은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이며, 노동의 질 차원에서 기업의 책임성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구조의 혁신, 노동자의 권리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바탕을 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구축 등 그 기여 범위가 넓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하지만 이윤추구가 주요 목적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SDGs 이행에 동참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 확대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 8의 기업 관련 내용은 기업의 SDGs에 대한 공감과 이행 전략의 수립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UN글로벌컴팩트 10대 원칙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과 경영의 가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실현은 결국 지속가능하고도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SDG 8은 양적인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지표의 보완 방향성의 제안은 결국 우리나라의 특수한 맥락에서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세부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SDG 8의 국내 이행 관련 다시금 조명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할 중요한 세부 목표는 실업률 감소,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권리의 회복, 고용의 양성평등 강화, 최저임금제 준수, 보다 안전한 사업장 환경,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으며 남녀 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고 조사되고 있다. 특히 주요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한국사회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GDP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수치에서도 확인된다(김태균 외, 2016). 따라서 SDGs 국내이행 관련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 활동, 정부 정책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보다 복합적인 사회적 노력의 산물이다. 즉,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지원, 사회보호 시스템과 결합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지원, 합리적 노동정책 지원을 통한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 노력 등으로 얻을 수 있다(김성규, 2013). 실제로 일자리와 생계수단 확보는 국가의 고용정책과 더불어 기업 내 노사관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SDG 8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고용정책과 노

사관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정량적인 노사관계 측정 지표 개발이 중요하다.

일자리 수의 증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주지되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절대적인 일자리 수의 증가와 함께 환경 친화적이면서 사회평등을 지향하는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고민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에서 과연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개념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설정하는가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 또한 노동의 권리 회복과 한국 사회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 문화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SDG 8 이행 관련 이주노동자의 산재율에 대한 정확한 상황 진단과 함께 관련 모니터링, 측정지표와 방법의 개발은 중요하다. 이는 성별, 이주 상태별 노동권의 국가 준수 여부와 정도를 점검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해당 측정지표의 개발이 단기적으로 쉽진 않아 보이나,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SDG 8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해당 측정 시스템과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게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간 합의된 지표에 대하여 충실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 상황 및 정책적 방향성에 조응하는 보완 및 대체 지표를 개발해야 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향성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보다 정교한 측정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있고(2015년 기준 10.2%) 향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이

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이슈이다. 본 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도 경제성장 및 고용 관련하여 청년실업의 문제가 한국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프로그램의 구축 과제는 한국의 포용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산업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2030년까지 청년 실업률에 대한 구체적인 감소 목표 설정과 연도별 감소 계획이 수립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노동시장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청년의 고용상황은 높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열정 폐이, 저임금 단기노동, 고용불안, NEET족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표현되듯이 일자리 질의 급속한 하락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ILO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ILO 협약 이행 확대 등과는 동떨어진 현상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 측정지표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의 질의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구축은 SDG 8의 국내 이행에 관건이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신뢰성 있는 근로 빈곤층의 연령별, 성별 통계자료 확보와 측정지표의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과 합리적 대상 선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각 연령 및 성별 임금수준, 노동 환경, 기업 내 기회의 평등성 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측정지표가 개발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 경제적 지표 외 고용안정성, 복지와 사회 안정망 제공 등 비경제적인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SDG 8의 주요 측정지표의 국내 보완 방향성을 정리하면 <표 6-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향후 SDG 지표 선정 및 보고 시 국제사회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동

<표 6-3> SDG 8 주요 측정지표의 국내 보완 방향

세부 목표	측정지표	보완 방향
8.1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
8.2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
8.3	8.3.1 성별에 따른 비농업분야의 비공식부문 고용 비율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측정 지표 개발 필요성
8.4	8.4.1 물질발자국(MF), 일인당 MF, GDP당 MF 8.4.2 국내물질소비량(DMC), 일인당 DMC, GDP당 DMC	-
8.5	8.5.1 직업, 연령, 장애에 따른 여성, 남성 취업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8.5.2 성별, 연령, 장애에 따른 실업률	장애 노동에 대한 파악과 관련 노동 조건, 실업률 등 지표 개발 필요성
8.6	8.6.1 교육, 고용, 연수 중인 아닌 청년(15~24세) 비율	NEET 개념 정의와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
8.7	8.7.1 성별, 연령에 따른 5~17세 아동 노동 비율과 노동자 수	우리나라 아동노동의 정의와 실태 파악과 지표 개발 필요성
8.8	8.8.1 성별, 이주 여부에 따른 치명적, 비치명적인 산업재해의 발생률 8.8.2 ILO에 따른 노동권의 국가 준수의 증가(성별, 이주상태별)	이주노동자의 성별, 이주상태별 산재율 측정 지표 개발 필요성
8.9	8.9.1 관광 관련 GDP(전체 GDP 대비 비율 및 성장률 기여도) 8.9.2 관광산업 종사자 수(성별에 따른 전체 직업 수 대비 비율과 직업 증가율 기여도)	-
8.10	8.10.1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과 ATM 수 8.10.2 성인의 금융기관 계좌 보유 비율	-
8.a	8.a.1 무역을 위한 원조에 대한 승인액과 지출액	-
8.b	8.b.1 전체 정부 예산과 GDP 대비 사회보호 및 고용 프로그램 지출 비용 비율	사회보호 및 고용프로그램 지출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 보다 정교한 측정지표 설정 필요성

자료: 저자 작성.

시에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정보를 포함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내 지표가 없는 경우 대체 또는 보완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프라와 산업화 관련 SDG 9의 측정지표에 대해서 앞서 제시한 측정가능성과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이행 시 고려할 수 있는 대체 또는 보완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국내 인프라 개선사항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을 제안한다. 본 지표는 도로의 보급 및 접근성 측정을 위해 국토면적뿐 아니라 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도로연장⁷¹⁾은 OECD 17위로 높은 편에 속하나 면적과 인구를 동시에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으로 계산 시 28위로 최하위에 해당된다.⁷²⁾ 면적만을 고려한 수치로는 도로 인프라의 발전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인구와 면적을 기하 평균한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으로 종합적인 인프라 발전 목표를 지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산업화와 관련하여 제조업의 확대를 수치화한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뿐만 아니라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보완적으로 고려한다면 제조업 내에서의 고부가가치 이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업과 농업의 부가가치율 변화를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 간 비중 변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제조 부문 고용에 대해서는 총 고용 대비 제조업 부문 고용 비중과 함께 제조업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함으로써 타 산업의 일자리 감소로 인한 비중 증가가 아니라 제조업 내의 실질적인 고용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71) 도로의 총 길이를 의미하며,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의 연장을 포함한다(livingarchive.inn.ac/datasets/show/51125f60c7c2f7779aec9700(접속일 : 2016.7.11)).

72) livingarchive.inn.ac/datasets/show/51125f60c7c2f7779aec9700(접속일 : 2016.7.11).

〈표 6-4〉 SDG 9 측정지표의 국내 적용 개선 고려사항

측정지표	고려사항
9.1.1 농촌 도로 접근성	-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 기초선 : ('13) 1.92 →('14) 1.47 →('15) 1.504
9.2.1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제조업·서비스업·농업 비율 - 제조업 내 중고급 기술사용 비중 or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제조업 고용 비율	- 제조업 내 신규 일자리 창출
9.3.2 용자 보유 소기업 비중	- 중소기업금융 비용 대 총비용 비율(%)

자료: 저자 작성.

끝으로, 소기업 부가가치 비중과 용자 보유 정도에 대해서는 향후 소규모 기업 정의에 대한 UN의 논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지표의 담당 기관으로 지목된 UNIDO/UNCDF는 10명 이하 기업을 소규모 기업 적정 수준으로 고려하는 중이다(UN Statistical Commission, 2016). 9.3.2번 지표로 소개된 용자 보유 소규모 기업 비중과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지표 중 하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 금융비용 대 총비용 비율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규모 5~9인 기준 사업체 중 용자 보유 0.5% 미만인 기업은 2008년 기준 30.84%에서 2014년 22.0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다.⁷³⁾

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SDGs의 이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수한 여건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연구개발 비중 측면에서 우수하여 기술개발과 혁신을 중시하는 국내의 기조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기술개발 비용이나 인력 측면에

73) http://220.71.4.163:8000/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C50038&conn_path=I3(접속일: 2016.8.25).

〈표 6-5〉 SDG 8의 세부 목표별 측정지표와 측정 관련 국내 현황

목표	측정지표	담당기관	기초선	OECD 평균 대비 경쟁력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의 이행과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과제 실적(15)	개선 방향
8.1	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세계은행	2.3(14)	△			-
8.2	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세계은행	5.1(10~15)	▲			-
8.3	1. 성별에 따른 비농업분야의 비공식부문 고용 비율(%)				3-1① 일자리창출 및 혁신형 창업지원 3-1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업체 수 : 1,500개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18.2%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측정지표 개발 필요성
8.4	1. 물질발자국(MF), 일인당 MF, GDP당 MF 2. 국내물질소비량(DMC), 일인당 DMC, GDP당 DMC				3-2①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3-2② 자원생산성(GDP/(국내 채취량+수입량)) : 1,382 원/kg 재활용률 : 83.2%(13)		-
8.5	1. 직업, 연령, 장애에 따른 여성, 남성 취업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2. 성별, 연령, 장애에 따른 실업률(%)	ILO	3.7(남)/3.6(여)(15) 10.5(15~24세)(15)	△	2-1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3-1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30대 여성 고용률 : 56.3%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 63.1(14)	장애 노동에 대한 파악과 관련 노동 조건, 실업률 등 지표 개발 필요성

〈계속〉

목표	측정지표	담당기관	기초선	OECD 평균 대비 경쟁력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의 이행과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과제 실적(15)	개선 방향
8.6	1. 교육, 고용, 연수 중이 아닌 청년 (15-24세) 비율	세계은행			3-1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창업지원	청년고용률 : 41.4%	NEET 개념 정의 와 기준의 명확 화 필요성
8.7	1. 성별, 연령에 따른 5-17세 아동 노동 비율과 노동자 수	UNICEF					우리나라 아동노 동의 정의와 실 태 파악과 지표 개발 필요성
8.8	1. 성별, 이주 여부에 따른 치명적, 비치명적인 산업재해의 발생률 2. ILO 노동권의 국가 준수의 증가 (성별, 이주상태별)	ILO			2-1② 고용·복지 연계강 화 3-1②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사고사망인원 : 0.58 명	이주노동자의 성 별, 이주 상태별 산재를 측정지표 개발 필요성
8.9	1. 관광 관련 GDP(전체 GDP 대비 비율 및 성장률 기여도) 2. 관광 산업 종사자 수(성별에 따 른 전체 직업 수 대비 비율과 직 업 증가율 기여도)				2-2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 : 20.9%(14)	-
8.10	8.10.1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과 ATM 수 8.10.2 성인의 금융기관 계좌 보유 비율(%)	세계은행 세계은행	 96.9(14)	 △			-

주: ▲ 매우 우수, △ 우수

〈표 6-6〉 SDG 9의 세부 목표별 측정지표와 측정 관련 국내 현황

목표	주요 개념	담당기관	기초선	OECD 평균 대비 경쟁력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의 이행과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과제 실적(15)	개선 방향
9.1	1. 모든 계절에 접근 가능한 도로 2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촌인구 비율						
	2. 교통수단에 따른 승객 수와 수하물 중량	ICAO	5,910만 명 231만 톤		2-4③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32.8% 분담률	
9.2	1. GDP,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UNIDO	28.8%	▲	3-1⑤ 첨단융합 및 기후 변화대응기술 개 발 투자 확대	GDP 대비 순투자율 : 29%(14)	
	2. 전체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의 비율	UNIDO	16.9%*				
9.3	1. 전체 산업 부가가치 대비 소규모 기업 비중 2. 용자 보유 소규모 기업 비중						
	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배출	UNIDO IEA UNFCCC	0.25kgCO ₂ eq/ 1인당 GDP	△	4-2② 시장을 활용한 효 과적 온실가스 감 축	GDP 대비 온실가스 배 출량 : 502.9 tCO ₂ eq/십 억원(13)	
9.5	1. GDP 대비 연구개발 비용 비중	UNESCO-UIS	4.29%	▲	3-1⑤ 첨단융합 및 기후 변화대응기술 개 발 투자 확대	GDP 대비 R&D 지출 비 율 : 4.15%(14)	
	2. 거주자 백만 명당 연구자(풀타임) 비중	UNESCO-UIS	6,899명	▲			

주: 1) ▲ 매우 우수, △ 우수

2) * 2010년 자료

서 우리나라가 크게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었다. 재활용물이나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부문에서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여 경제산업 부문의 환경적 개선에도 성과가 있었다. 반면, 취약계층의 고용물이나 근로 환경,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건을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지표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포용성’에 대한 배려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경제 및 산업구조 이행과제는 전통적인 경제성과 고용에 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다.

기업 단위에서 SDGs 달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업 내 SDGs 인식 증진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측정지표를 이해하고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의 조직, 직무, 사업에 SDGs를 내재화하되, 원자재부터 제품폐기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의 가치사슬 단계별 매핑이 도움이 될 것이다(〈그림 6-1〉 참조).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기업들은 각 기업의 우선순위 SDG의 확인과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기본 틀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계획의 포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여타의 주요

〈그림 6-1〉 기업 비즈니스 활동의 가치사슬



자료: GRI 외(2015).

정책 및 계획에 SDGs를 주류화해야 한다. SDGs의 효과적인 주류화를 위해 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강화할 목적의 조정 체계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조정 체계가 중심이 되어 SDGs 국내이행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통해 SDGs 관련 국내 여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선진국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 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실행력을 향상시킬 민관협력 체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재원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고용노동부(2003),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
- _____(2010~2020), 국가고용전략(2010~2020).
-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 _____(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 _____(2014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 _____(2014b),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_____(2013), 고용률 70% 로드맵.
-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안).
- _____(2013),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안).
- 김보람·문은하·이승윤(2012), 「퍼지셋 방법론(Fuzzy-set ideal type approach)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질 분석 :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정의를 중심으로」, 201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성규(2013), 공여기관의 시각에서 본 분야별 Post MDGs 포럼: 사회보호 & 고용, 한국국제협력단.
- _____(2012),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확대를 위한 개발협력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김세원·강인수·김종일·임소영(2015),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산업 ODA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 김수진(2016), “SDGs 지표 데이터 이용가능성(Data Availability) 분석”, 「국제개발협력」, 2016년 제2호, pp. 79-113.
- 김태균 외(2016), 「한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내 이행 정책수립을 위한 대응방안」, 외교부 연구용역결과보고서, 외교부.
- 대한민국정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박영실(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모색”, 「국제개발협력」, 2016년 제2호, pp. 45-76.

- 산업통상자원부(2014), 14개 시·도 지역산업발전계획(안) 확정, 보도자료.
- _____(2014), 2014~2018 지역산업발전계획(안), 보도자료 내 붙임문서.
- _____(2013),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안).
- 석현호 외(2014), 「국가주요지표 보정연구 1 : 연구방법과 내용, 통계청 연구용 역보고서」, 통계청.
- 임소영·강지현(2016), “2030 개발의제 시대 개발컨설팅 사업의 방향”, 「KIET 산업경제」, 2016년 2월호, pp. 43-52.
- 임소영·김지혜·강지현(2015), 「국제금융기구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기관 및 산업계 적용방안 연구」, 환경부.
- 임소진(2015), “21세기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와 개발목표(SDGs)”, 「EDCF 이슈페이퍼」, Vol.4, No.8,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 _____(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포커스」, 제14호, 한국국제협력단, 성남.
- 임원혁(2012),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KDI 포커스, 제25호,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2016 주요업무추진계획, <http://kostat.go.kr>

2. 해외 문헌

- Anker et al.(2002),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LO.
- B & I Major Group(2013), Draft 112513 for comment.
- Corporate Citizenship(201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How Businesses Can Contribute.
- DAC(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OECD, Paris.
- ECOSOC(2016),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2016/75, UN.
- EU(2015), The Rol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to Fos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Report of

the Expert Group “Follow-up to Rio+20, notably the SDGs”.

- Global Compact Network Canada(2016), The Canadian Private Sector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2016), GIF Operating Guidelines.
- Global Infrastructure Hub(2016), Allocating Risk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tracts.
- GRI, UNGC, WBCSD(2015), SDG Compass - the guide for business action on the SDGs.
- ILO(2013), Concept Note 2013, Geneva.
- _____(2012a),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Beyond the MDGs : It's all about jobs and livelihoods, News 8, Nov. 2012, Geneva.
- _____(2012b), Decent Work Indicators : Concepts and definitions, ILO Manual, First version, Geneva.
- _____(2011a),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Our common road towards Decent Work, In Support of the Second edition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cademy, Montreal, Canada.
- _____(2011b), Promoting Decent Work in a Green Economy, ILO Background Note to towards a Green Economy, The ILO Green Jobs Team.
- KBCSD(2015), Sustainable Korea 2030 산업계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마스터플랜.
- OECD(2016a),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OECD, Paris.
- _____(2016),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s Targets : A Pilot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 PWC(2015), Make it your business : Engaging with the Sustainable United Nations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Statistical Commission(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19 February 2016(E/CN.3/2016/2/Rev.1), UN.
- UN(2001),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

nium Declaration, UN, New York.

- UNCTAD(2014), Chapter 4, Investing in the SDGs: an Action Plan for promoting private sector contributions in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 UN ECOSOC(2016),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2016/75, UN.
- _____(2006),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 Dialogues at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 New York.
- UN General Assembly(2015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A/RES/70/1), UN.
- _____(2015b), Addis Ababa Action Agenda, Annex i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7 July 2015(A/RES/69/313).
- UN General Assembly 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2014), TST Issues Briefs.
- UN Global Compact(2013a),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the Development Goals.
- _____(2013b), Building the Post-2015 Business Engagement Architecture.
- UNIDO(2015), Introduction to UNIDO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 UN Statistical Commission(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19 February 2016(E/CN.3/2016/2/Rev.1), UN.
- UN-TFSSE(2014),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the Challen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 Position Paper by the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TFSSE).
- Zhan, J.(2015), Investment, Infrastructure and Financ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CTAD.

3. 기타

- 국가지표체계 포털 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혁신포털 www.economy.go.kr/
-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wdi.worldbank.org
- 유엔지속가능발전 지식플랫폼 sustainabledevelopment.un.org
- 유엔 - SDGs 공식웹사이트
- 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infrastructure-industrialization
-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www.index.go.kr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kr
- 통계청 통계DB - 중소기업금융비용대총비용비율 220.71.4.163:8000/statHtml/
statHtml.do?orgId=142&tblId=DT_C50038&conn_path=I3
- e-나라지표 -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livingarchive.inn.ac/datasets/show/51125f60c7c2f7779aec970
- Global Infrastructure Hub globalinfrastructurehub.org/
- OECD 통계 stats.oecd.org
- SDGs 지표 데이터베이스 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
- The Global Business Alliance for 2030 웹사이트 www.gbafor2030.org
- UN 책임투자원칙 www.unpri.org

Abstract

A Study for the Effectiv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Soyoung Lim *et al.* (syylim@kiet.re.kr)

A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ountries' self-sustaining economic growth and the urgency of responding to global challenges have increas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me to need comprehensive development goal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have been adopted as new development goals since 2015, the deadline for the comple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The new development agenda consisted of 17 goals and 169 targets covering a wide range of sectors including economics, society,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y including a wider range of issues, SDGs have become a comprehensive and concrete development objective. As a result, it is a criterion that is considered not only in the case of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of implementing domestically by all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developed countries. The inclusion of broad targets in the SDGs and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developed countries has led to the need for diverse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considerable financial resources. In this condition, the role of the enterprise as a source of new financial resources and as an efficient and professional cooperative partner has been noticed. Companies will be able to use SDGs as their core system in planning and operating their strategies, objectives and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of the SDGs and presents information and guidelines to help achieve thi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lement SDGs in the domestic economy, particularly those that will drive sustainable growth. Goals 8 and 9 are primary goals related to economic growth.

Goal 8 addresses "the promotion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This is most directly and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ic realm among the 17 objectives, with economic growth and jobs as key goals. Goal 9 is largely composed of three key elements of infrastructure, industrialization and innovation, and is expressed as "building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ing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ing innovation". Infrastructure such as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energy provides the basic system essential for running society and businesses. Industrialization leads to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and consequently income poverty reduction. Innovation advances the

technical capabilities of the industrial sector and leads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We conducted surveys of companies to understand the awaren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domestic companies and the plans to achieve SDGs at the level of enterprises. Respondents' awareness of the 17 SDGs is low. Nearly half(49%) of respondents said they had never heard of SDGs, and only a small percentage(1%) said they knew the details. Only 23% of the respondents have a company-wide countermeasure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mainly in terms of strategy, planning, and manpower. On the other hand, SDGs have not been considered sufficiently in terms of budget allocation and new business development.

Respondents replied that SDG 8(economic growth and decent work) was overwhelmingly the most important goal of the 17 SDGs at both national and company levels. In addition to SDG 8, they answered SDG 3(good health and well-being), SDG 4(quality education) and SDG 10(reduced inequalities) as important goals at the national level,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social issues at the nat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they recognized that SDG 9(infrastructure, industry and innovation) and SDG 12(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were strategically important at the enterprise level.

This study presents an in - depth analytical framework of SDGs by indicators. First, through the framework, we investigate SDGs and detailed targets, seek the ways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them, and examine their relationship with domestic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We then identify domestic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nferences related to the targets. The framework helps us identify national policies and doc-

uments, guidelines, recommendation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ed to each indicator, which presents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Finally, we understand the domestic situation for each indicator and set baseline.

SDG 8 and 9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in - depth analytical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SDG 8 and 9, analysis of detailed targets, indicators and norms and guidelines, domestic conditions and baseline survey were presented.

To achieve SDGs at the enterprise level,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trengthening awareness and monitoring of SDGs in the enterprise. Internalizing SDGs in the organization, job, and business of a company, mapping the application of the SDGs in the value chain step of the enterprise activity from raw materials to product disposal will be helpful. In this way, companies can search for the priority SDG of each company and create business opportunities.

At the government level, national strategies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established securing their comprehensiveness. SDGs should also be mainstreamed in other key policies and plans. For the effective mainstreaming of SDGs, there is a need for a coordination system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ompanies. In addition, we could exp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that will enhance the sustainable potential of new business opportunities and improve the implementation ability of them.

연구보고서 2016-80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산업 부문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인쇄일 2016년 12월 23일

발행일 2016년 12월 26일

발행인 유병규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문 의 자료·편집팀 044-287-3215

인쇄처 KAWPH 인쇄사업부

값 6,000원

ISBN 978-89-5992-996-2 93320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